

코스피	코스닥
3200.83	805.42
(+16.41)	(+8.61)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472	1392.75
(-0.003)	(+0.45)

구형 D램·첨단 EUV 병행... 삼성·SK, 中 ‘투트랙 방어’

K-반도체 ‘D램 왕좌 지키기’
DDR4 공급불안에 가격 역전 지속
생산 전략 조정하며 점유율 수성
中 CXMT 추격 가속... 업계 긴장감
EUV 투자로 차세대 기술 고도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D램 기술 추격에 맞서 첨단 장비 도입과 생산 전략 조정에 나서며 ‘투트랙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축소 방침이던 구형D램 생산을 다시 늘려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술 투자에도 속도를 내며 기술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4면>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최첨단 EUV(극자외선) 장비를 도입하며 D램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첨단 D램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업계 최초로 양산용 ‘High(하이)NA EUV’장비를 이전 M16팩(Fab)에 반입했다. 하이 NA EUV는 기존 EUV보다 해상도를 크게 향상시킨 차세대 노광 장비로 2나노 이하 시스템반도체와 10나노 이하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 초 연구용으로 하이NA 장비를 구내에 들여온 바 있다.

국내 기업들의 이 같은 행보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추격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 기업은 D램 시장에서 아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올 2분기 SK하이닉스는 33.7%의 점유율로 1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32.7%로 직전 분기 대비 점유율이 1%포인트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다만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 테크놀로지(CXMT)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업계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CXMT의 D램 시장 점유율이 올해 연간 7%를 기록한 뒤 오는 2027년에는 10%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에는 CXMT가 최신 D램 메모리인 DDR5를 선보이며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또한 내년 출시를 목표로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샘플을 테스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점진적으로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던 DDR4 생산을 2026년까지 연장하며 시장 점유율 방어 전략을 꾀하는 모습이다. 메모리 빅3(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모두 당초 DDR4 생산 축소 계획을 내놨으며 중국 CXMT 또한 DDR5 전환을 가속하자 DDR4의 공급 우려가 커지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DDR4 ‘16GB 2Gx8’ 가격은 지난 6월 DDR5 ‘16GB 2GxB’ 가격을 넘어선 뒤 3개월째 가격 역전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DDR4가 7.01달러, DDR5가 5.85달러였으나 지난 8월 각각 8.59달러, 6.17달러를 기록하며 제품 간 가격 격차가 더 벌어졌다.

DDR5가 DDR4보다 전송 속도가 약 2배 빠르고 전력효율도 30%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DDR4 가격이 더 비싼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일각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일시적 수요



양대노총 위원장과 손잡은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양경수(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특별자금 10조 공급

**창업·성장·애로기업 맞춤형 지원
금리 보증료 인하로 금융비용 절감
폐업지원 강화로 재기 기회도 넓혀**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금리경감 3중세트’를 마련하고, 은행권의 폐업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금융비용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당국 및 금융권 관계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융위는 ▲신규 자금공급 방안 ▲금융비용 경감방안 ▲은행권 폐업지원 강

화 방안 등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목표 달성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청취하고,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했다”면서 “금융위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간의 이야기를 모아 크게 세 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성실상환 소상공인 유동성 공급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를 높은 맞춤형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공급되며,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정책 금융기관의 자체 여력으로 운영된다.

자금은 유형별로 ▲창업 기업(개업 7년 이내 기업)에 2조원 ▲성장 기업(매출

증가·수출확대 기업)에 3조5000억원 ▲경영애로 기업(매출감소·경영악화 기업)에 4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특히 우대금리는 종전의 1.3%포인트(p)에서 1.5~1.8%p까지 적용하며, 우대보증료도 최대 0.3%p 추가 인하한다. 이에 따라 동일 신용·재무조건에서도 더 유리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상품별 대출 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도 함께 적용된다. 상향폭은 약 60% 이상으로, 예시로는 6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던 차주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은행권도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축진보증’을 공급한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한 3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통해 보증대출이 제공되며, 상품은 위탁보증 절차 협의 거쳐 9월 말부터 지역별로 순차 출시된다. <3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SK온, 북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플랫아이언과 1GWh 규모 ESS 계약

6.2GWh 규모 우선 협상권도 확보
최대 7.2GWh 규모 공급기반 마련

SK온이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과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지 생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워 전기차를 넘어 에너지저장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SK온은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둔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이하 플랫아이언)’과 1기가와트시(GWh)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SK온은 플랫아이언이 추진하는 매사추세츠주 프로젝트에 LFP 배터리를 탑재한 컨테이너형 ESS 제품을 2026년부터 공급한다.

아울러 플랫아이언이 2030년까지 추진하는 6.2GWh 규모의 추가 프로젝트에

생산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 감산하며 조율하면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메모리 업체와의 D램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10나노 공정보다 초미세 공정 패턴 구현 능력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대한 우선 협상권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향후 4년간 최대 7.2GWh 규모의 ESS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SK온은 내년 하반기부터 ESS 전용 LFP 배터리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조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 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 전용 라인으로 전환해 현지 생산 체계를 강화한다. ESS는 전기차보다 크기와 무게 제약이 적어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이 높은 LFP 파우치 배터리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SK온 ESS 제품은 공간 효율성이 높은 파우치 배터리를 적재해 고전압 모듈 기반으로 설계됐다. 랙 단위 대신 모듈 단위로 용량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시스템 제공이 가능하다.

<3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국민의힘, 추미애 국회 윤리위 제소... “법사위원장 중립성 흔들려”
▲정부, 日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향후 별도 추모 행사 마련

/사진 뉴시스

▲특검 “한동훈 출석 필요... ‘표결방해’ 진상 규명에 큰 도움”
▲국세청, 133만 체납자 전수조사... ‘이재명식 행정’ 전국 확대

▲대통령실, 지출 구조조정 상시화...과감한 재정 개혁 추진
▲정청래, 최강욱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관련 윤리감찰단 긴급조사 지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저축은행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부실 PF정리 등 건전성에 만전 금융소비자 보호, 최우선 과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11개 저축은행 CEO들과 간담회
“서민금융 확대 인센티브 마련
영업활성화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CEO들과 첫 상견례 자리에서 부동산 PF 위주의 단기 수익 추구를 경계하며, 서민·중소기업 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융사고 리스크와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4일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저축은행중앙회에서 11개 저축은행 CEO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잔여 부실 PF 정리 등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영업규제 완화 논의는 건전성 우려가 불식된 뒤 가능하다”고 말했다. 단기 수익성에 치중한 PF 여신이 업권 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진단과 함께, 중장기적 영업 기반 강화와 자본 확충 등 손실흡수 능력 제고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도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업계의 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저축은행 주 고객이 서민·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했다.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단계에서 소비자 관점을 고려해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이달부터 시행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라 저축은행 거래금액이 커지면서 금융사고 발생 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시중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99%로, 시

중은행보다 약 0.4%포인트 높다.

이 원장은 또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채무조정요청권, 금리 인하요구권과 같은 유용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활용을 안내해 고객들이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도록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이스 피싱·불법계좌 개설 등 금융범죄 취약성을 언급하며 “안전인식시스템, 해외거래 차단 서비스 등 보안 인프라를 적극 도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포용적 금융 확대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선별 지원을 통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하반기에도 부실 PF 정리와 건전성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대면 경쟁 격화와 신성장동력 약화 등 경영 여건상 애로가 크다”며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겠다”며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애로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인상률 6% 임금협상 마무리

영업이익의 10% 성과급 지급키로

SK하이닉스가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임금 교섭을 마무리했다.

SK하이닉스는 임금인상률 6%와 새로운 성과급(PS) 기준을 담은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대의원 투표를 통해 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타결된 합의안은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개인별 성과급 산정 금액의 80%는 당해년도 지급,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는 최대 39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원들은 올해 3조1200억원을 포함해 3년에 걸쳐 총 3조900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 성과와 개인의 보상 간 직접적 연계를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정립함으로써 시스템(제도) 경영을 통한 보상의 내적 동기부여를 극대화했다”라며 “성과급의 일부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해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윈윈 효과를 얻게 됐고, 이는 회사와 구성원 모두가 장기적 성장 관점에서 접근한 사례”라고 말했다.

또 10년간 기준을 유지한다는 원칙으로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회사와 구성원 간 신뢰를 확보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구성원이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준 정립 과정에서 구성원의 직접 참여와 제안, 토론으로 합의를 이루며 ‘SK의 기업문화’가 지닌 근원적이고 차별적인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이번 합의는 내부적으로 회사 성과의 파이(규모)를 키우자는 동기 부여 효과와 더불어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성과주의에 기반한 보상 체제를 강화해, 우리 사회의 의대 선호 현상을 전환시키며 국내외 이공계 우수 인재를 확보, 유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에서 (앞줄 왼쪽 4번째부터)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830만 中企·소상공인 위한 정책 기대”

중기중앙회-더불어민주당 간담회

김기문 회장 “한미 ‘마스가’ 타결
중소조선기자재 업계 기회될 것”

정청래 대표 “대기업·중소기업 간
갑질·기술탈취·불공정 개선 노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자재 및 부품 업체가 수출 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중소기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마스가(MASGA)가 중소기업자재 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후 첫 경제단체 방문지로 전날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데 이어 이날엔 중기중앙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 회장은 “당대표가 되면 대기업들 먼저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를 우선해 찾은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민생경제 악화로 지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100만명 넘게

폐업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 민주당에서 83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정부여당에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사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매우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민주당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갑질 관계, 기술 탈취, 위수탁 관리 불공정 등을 개선하고자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철강·알루미늄 분야에 대한 “중국이 한국에 저가 공세를 해서 이중삼중으로 고통 받는다고 들었다”며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인들만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부여당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저가공세를 어떻게 끊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정 대표에게 ▲고관세 등 통상문제 관련 중소기업 현안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 등 명확화 및 사용자 방어권 도입 ▲건설업 생산구조 공정화 통한 산재예방 및 품질제고 ▲상법 개정 관련 입법 보완 ▲고령인력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 및 인센티브 확대 ▲대·중소기업간 제값받기 환경 조성 ▲중소기업 성장·육성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리튬메탈전지 ‘12분 급속충전’ 기술 개발

LG에너지솔루션-KAIST

1회 충전 800km, 누적주행 30만km
연구결과 학술지 ‘네이처에너지’ 게재

LG에너지솔루션과 카이스트(KAIST)가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는 리튬메탈전지의 충전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양측 연구팀은 1회 충전에 800km 이상 주행, 누적 주행거리 30만km 이상의 수명을 확보하면서 충전 시간을 12분까지 단축할 수 있는 리튬메탈전지 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과 KAIST는 지난 2021년 리튬메탈전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공동연구센터 ‘프론티어 리서치랩(FRL)’을 설립한 이후 꾸준히 연구 성과를 발표해왔다. 이번 성과는 2023년 동일 학술지에 게재된 ‘저부식성 붕산염-피란(borate-pyran) 액체 전해액 기반

리튬메탈전지’의 후속 연구다. 당시 방전 효율과 에너지 밀도를 개선한 데 이어 이번에는 리튬메탈전지의 가장 큰 난제였던 충전 속도 문제를 진일보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리튬메탈전지는 기존 리튬이온배터리의 흑연 음극을 리튬메탈로 대체해 무게와 부피를 줄이고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 대폭 늘릴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아왔다.

실제 이를 적용하면 고성능 전기차 주행거리를 평균 600km에서 800km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덴드라이트’(dendrite·나뭇가지 모양의 결정) 현상으로 안정성과 수명 확보가 어려웠고, 특히 급속충전 시 덴드라이트가 심화돼 내부 단락을 유발하는 것이 상용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왔다.

FRL 연구진은 급속 충전에서 덴드라이트가 형성되는 근본 원인이 리튬메탈 표면의 불균일한 계면 응집반응 때문임

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응집 억제형 신규 액체 전해액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새 전해액은 리튬 이온과의 결합력이 약한 음이온 구조를 활용해 계면 불균일성을 최소화하며, 급속 충전 상황에서도 덴드라이트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높은 에너지 밀도를 유지하면서도 기존 리튬메탈전지의 약점이던 느린 충전 속도를 극복해 급속 충전에서도 안정적인 구동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충전 시간이 12분으로 단축되면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상용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영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LG에너지솔루션과 KAIST가 FRL을 통해 이어온 지난 4년간의 협력이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학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하고 차세대 배터리의 분야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체불방지·노후소득 극대화 목표 금융상품 이해도·재정지원 관건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2030년까지 전체 사업장 도입 목표
상품유형에 따라 직접 운용방식 지정
해지를 통한 일시 출금·투자도 가능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5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 임금 체불 가능성을 낮추고,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 정부, 퇴직연금 도입 대상 확대 방침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의무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에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오는 2027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 이어 2028년에는 5~99인 사업장,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자가 매달 일정액을 연금 계좌로 납입하게 하는 제도다. 퇴직 시 근속 기간에 비례해 목돈으로 지급되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는 달리, 체불의 위험이 적고 기지급된 연금액을 운용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퇴직연금이 기존 퇴직금 제도보다 장점이 많은 만큼,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하려는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과 2024년에도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이유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시도는 무산됐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영세 사업장이 유동성 부족과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꺼리는 만큼, 제도적 과도기 동안 재정을 지원해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한 시민이 노인 일자리 정보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는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개최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 당시 "임금 체불액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고, 전체 체불액의 40%는 퇴직금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체불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퇴직연금, 제도 숙지해야 유리

퇴직연금 제도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교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가입 시 숙지해야 할 내용도 많다.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과 유사하게 일시 출금이 가능하지만 해지 사유 없이는 세금이 발생하며, 상품 유형에 따라 사용자 혹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식을 지정해야 한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한 직장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 매달 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유형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 측에서 퇴직연금 운용 상품을 선택해 운용 후 약정된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 측에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가입자가 직접 상품 운용 방식을 선택한다.

운용 상품은 예금·채권 등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보장형 상품'과 증권·펀드 등 기대 수익률은 높으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비보장형 상품'으로 구분된다. 적립된 금액을 보장형 상품과 비보장형 상품으로 나눠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며, 투자 지식이 불충분하다면 은행·증권사 등 퇴직연금운용사가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디폴트옵션(운용방식사전지정제도)'도 선택할 수 있다.

퇴직 등 퇴직연금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개인형IRP 계좌로 옮겨진다. 옮겨진 금액은 만 55세 이상이라면 연금 형태로 수급이 가능하며, 해지를 통한 일시 출금이나 추가 투자 운용도 가능하다. 다만 해지를 통한 일시 출금은 본인이나 가족의 중대 질병, 과산 등 사유가 없다면 퇴직연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금에서 최대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한 금융권 퇴직연금 운용기관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불충분해 적립액 대부분이 기본 상품에 해당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재투자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면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도가 높아지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보다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는 고객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조정 불성립

기업에 미칠 중대한 재무적 충격 고려
이용자 피해 보상 법정다툼 가능성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통신분조위)의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피해 이용자 보상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통신분조위에서 지난달 결정한 조정안에 대해 기한 내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당사자가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앞서 통신분조위는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연말까지 이동통신 해지 위약금 전액 면제 ▲인터넷·IPTV 등 결합상품 해지 시 발생하는 할인 반환금의 절반 보전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

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지난 7월 14일까지만 위약금 면제 기한을 설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문의 문자 한 차례 발송만으로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기업에 미칠 중대한 재무적 충격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으로 번질 파급 효과를 고려해 통신분조위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번 보안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 유심 교체·영업 중단 보전 비용 2500억원 등 총 1조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회사 측은 올 8월 한 달간 이동통신 요금 50% 감면, 연말까지 데이터 50GB 무상 제공, 멤버십 혜택 확대 등 자체 보상안을 시행했으며,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0@

대출 이동 활성화 등 年 2730억 부담 완화

》1면 '성실상환 소상공인...'서 계속

◆ 소상공인 금융비용 절감 '3종 세트'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등 '금리경감 3종 세트'가 마련된다. 금융위는 해당 방안을 통해 대출 이동 활성화 및 금리인하 요구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약 273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 2023년 5월 도입된 가게대출 갈아타기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며, 은행권 신용대출부터 우선 추진된다. 또한 은행권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개발, 대출비교플랫폼 입점 확대 등 상품 경쟁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금융위는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해 소상공인 차주가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며, 불수용되는 경우 차주에게 그 사유를 안내한다.

은행권에 적용된 중도상환수수료 개



권대영(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현장의 목소리로 만든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편 방안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한다.

◆ 은행권 소상공인 폐업지원 강화

폐업지원 강화 방안은 은행권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조속한 폐업 이후 다른 경제활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폐업지원대환대출 확대,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 신설, 일시상환 요구금지 등 내용을 포함한다.

금융위는 이후에도 현장제감형, 소비자 친화적 금융정책과제 발굴·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해 현장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2분기 가계 저축률 8.8%… 6년來 최고

금리 하락에도 저축률 상승 추세 “미래 불안으로 ‘보복 저축’ 증가”

2분기(4~6월) 가계 저축률이 8.8%로 1분기와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던 지난해 4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자산가격 상승과, 고령화로 인해 저축률이 반등한 것 외에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여파로 가계부담이 증가하면서 저축률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2분기 총 저축액은 239조 290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1~3월) 저축액보다 8조 7254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약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저축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청년층의 취업불안, 결혼 출산 집마련 등 당장 큰 소비보다 우

선 저축을 우선한 영향이다.

현재 20~3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평균 71.2%로 10명중 7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61.3%, 30대는 81%다. 1년전 20대의 경우 61.3%, 30대 80.5%인 것과 비교하면 30대의 비중만 늘었다. 고용됐던 20대가 30대까지 일을 이어간 반면 20대는 일을 하지 않아 되레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보복저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복저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명품, 외식에 지갑을 열던 '보복 소비'의 반대 개념으로, 생활필수품 이외에는 거의 소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자, 주택구입과 같은 목적을 위해 저축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층도 기대수명이 2000년 76세에서 2023년 기준 83.5세로 길어짐에 따라

노후목적의 저축비중도 늘었다. 60세 이상이 근무하는 비중은 2019년 7월 47.1%에서 47.8%로 0.7%포인트(p) 상승했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저축률은 소비로 이어지지 못해 내수(소비, 투자)회복이 더뎠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제공한 민생지원금이 소비를 늘려 보복저축이나 노후목적의 저축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경제불확실성과 미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규제에 정책금융마저 축소되면서 서민들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 주택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보복 저축 확산에 예상되는 요인"이라며 "경제성장을 추경에 의지하기 보다 금융불확실성을 낮추고 청년채용, 청년연장을 도입해 원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

“첨단 기술·현지 생산력 바탕 북미 입지 강화”

》1면 'SK온 북미 재생...'서 계속

또 열 확산 방지 솔루션과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번 계약은 SK온이 지난해 말 ESS 사업실을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격상한 뒤 거둔 첫 성과다.

SK온은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통해 일시적 전기차 수요 둔화를 상쇄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진 SK온 ESS사업실장은 "이번 계

약은 SK온이 배터리 케미스트리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 배터리 기술과 현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추가 고객사를 확보해 북미 ESS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나단 푸어 플랫폼이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기술력과 현지 생산 능력을 지닌 글로벌 배터리사와의 협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SK온과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예정된 북수의 프로젝트에서도 협력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원관희 기자 wkh@

“규제의 벽 허물어야 韓경제 산다 기업, 보상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대한상의 등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최태원, 기조연설서 규제 철폐 촉구
“중소·중견 0.04%…회귀율 6.5%”
규제 늘고 인센 줄어 성장회피 고착

한국 경제가 0%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쏟아지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이 모험과 도전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지속 성장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최태원 회장은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 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의 벽을 제거해야 성장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단식 규제가 한국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0.04%에 불과하지만, 되레 중견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비율은 6.5%에 달한다”며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인센티브는 줄고 규제만 늘어나기 때문에 현상 유지나 분할을 택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산 5000억원을 넘으면 94개의 규제가 추가되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329개의 규제가 적용된다.

최 회장은 “성장을 회피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과거에는 맞았던 정책이 지금은 족쇄가 됐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또한 패러다임 전환도 촉구했다.

최 회장은 “과거처럼 작으니까 미리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했으니 지원한다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대기업이 되는 것을 칭찬하고 상을 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기업들이 성장을 목표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주도 경제 시절 목표 수출액을 달성한 기업에 금융 혜택을 줬듯, 이제는 성장률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 예외 적용도 제안했다.

행사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비상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저성장의 근본 원인은 도전과 모험을 감수하는 기업이 정신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국내 대표 기업들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모했다”며 “규제와 조세 부담, 짧은 CEO 임기 등이 위험 회피 구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직접 투자보다 민간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본시장과 노동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완화하고, 에이전틱 AI와 퍼지컬 AI 같은 신기술을 제조업과 접목해 성장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은 대한상의, 한경협, 중경련이 주요 관계 부처와 국회 등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연말까지 분기별 정례 포럼을 열고,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성장 생태계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해 건의할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K-배터리, ESS·원통형 앞세워 활로 모색

미국 생산 확대, 공급 안정성 강화
SK온·LG엔솔, 북미 ESS 프로젝트 수주
LG엔솔·삼성SDI, 원통형 46시리즈 확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미국 관세 공세에 대응해 미국 현지 생산을 강화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수주 확대에 나서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이날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플래티아인 에너지 개발(플래티아인)’과 1기가와트시(GWh)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SK온은 매사추세츠주 프로젝트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컨테이너형 ESS 제품을 2026년부터 공급하게 되며 2030년까지 추진되는 6.2GWh 규모 추가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협상권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향후 최대 7.2GWh 규모의 ESS 제품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SK온은 내년 하반기부터 ESS 전용 LFP 배터리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조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 공장의 일부 전기차 배터리 생산라인을 ESS 라인으로 전환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월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ESS용 배터리 생산체계를 갖추고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먼저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 지난 7월에는 미국 전기차 업체에 약 6조원 규모의 ESS용 LFP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삼성SDI도 스텔란티스 합작법인(JV)의 일부 라인을 ESS용으로 변경하고 연내 생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후 전력망 교체와 데이터센터 확충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ESS 시장은 당분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현지 생산 기반이 부족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국내 배터리사들도 미국 내 생산라인을 ESS 중심으로 전환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배터리사들은 ESS뿐 아니라 원통형 배터리 분야에서도 입지를 넓히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해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75GWh, 32GWh 등 총 107GWh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인 46시리즈를 약 15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것일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SDI 역시 최근 유럽 완성차 업체와 프리미엄 전기차용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헝가리 신규 라인에서 2028년 양산을 준비 중이다.

업계는 당분간 ESS가 주요 성장 동력이 되겠지만 이후 완성차 프로젝트 납품이 본격화되면 배터리 출하가 한 단계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는 2027년 이후에는 대형 계약 물량이 가세하면서 국내 배터리사들의 생산 포트폴리오가 한층 다변화될 것이라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통형 배터리는 차세대 기술 영역으로 분류되며, 국내 업체들이 강점을 보유한 분야로 꼽힌다.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저가·대량 시장을 넓혀온 것과 달리 우리 기업들은 고성능과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해 왔다”며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지만 에너지밀도와 안정성, 출력 특성 등 기술적 난도가 높은 영역에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높게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원민희 기자 whk10

K-방산, 유럽서 새 시장 뚫었다 현지 생산·파트너십 확대 가속

유럽 각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무장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K-방산의 위상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유럽은 신속한 납기와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한국 무기에 주목하고, 한국 기업들은 현지화와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유럽으로 달려가고 있다.

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체들은 폴란드 키엘체에서 지난 2일(현지시간) 개막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 2025’에 참석해 각국의 업체들과 네트워킹 활동을 펼치고 있다. MSPO는 지난 1993년부터 매년 열려온 동유럽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로 지난해에는 35개국 방산업체와 약 3만명이 방문했다. 올해 전시회에 국내 방산업계가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유럽 각국이 군비 확충에 속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토·EU, 사상 최대 재무장 본격화
폴란드·루마니아 등 동유럽 수요 확산
MSPO 2025서 전차·전투기 대거 전시

실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는 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유럽연합(EU)도 오는 2030년까지 8000억 유로(약 1270조원)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전통적으로 유럽 방산시장은 자국 또는 역내 업체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왔지만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K-방산도 새로운 구매처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유럽이 K-방산을 원하는 첫 번째 이유는 ‘속도’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은 전력 공백을 메워야 했고, 한국은 비교적 짧은 납기와 안정적인 생산 능력으로 대응했다. K9 자주포, K2 전차 등은 계약 직후 실제 전력 배치까지 걸린 시간이 다른 경쟁국보다 현저히 짧았다.

두 번째는 ‘가격 대비 성능’이다. 유럽



오는 5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제33회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 현대 로템 전시관. /현대로템

무기는 기술적으로는 앞서지만 비싼 가격과 납기가 명확하지 않다. 반면 한국 무기는 성능과 운용 효율성 면에서 충분한 신뢰를 얻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실제 폴란드와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등 동유럽 국가들이 K-방산 도입을 검토하거나 계약 체결에 나서면서 국내 기업들 역시 유럽 전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WB그룹과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 합작법인 설립에 나섰고,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를 추가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 성사됐다.

LIG넥스원은 루마니아와 대공미사일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유럽에 전투기 유지보수(MRO)센터를 설립해 수출한 다목적 전투기 FA-50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현지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현지화를 통해 단순 판매를 넘어 유럽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MSPO 2025에서도 한화방산 3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시스템)는 통합 전시관을 열어 육·해·공·우주 전력을 아우르는 무기체계를 선보이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경상수지, 3개월 연속 100억달러 흑자

한은, 2025년 7월 국제수지 발표

경상수지가 3개월 연속 100억달러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선박 등의 수출이 늘면서 상품수지가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1100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5년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7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107억8000만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를 작성한 이후 7월 기준 역대 최대 흑자다.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표이다. 수출과 수입을 포함하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우선 상품수지에서 수출은 수출이 597억8000만달러로 1년전과 비교해 2.3% 증가했다. 수입은 495억1000만달러로 0.9% 감소해 10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반도체, 선박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반도체가 149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1.1% 올랐고, 선박이 21억달러로 114% 올라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수지는 운송(1억4000만달러)은 늘었지만 외국인보다 국내인이 여행과 직구등으로 구매가 늘며 9억달러 감소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도 3억2000만달러 줄었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29억5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본원소득수지중 급여 및 임금은 1억6000만달러 감소했지만 투자소득중 배당소득이 25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이전소득수지는 2억9000만달러 줄었다.

한편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1100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지난달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예상보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미국 관세의 영향도 더디게 나타남’에 따라 흑자폭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며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1100억달러로 내다봤다. /사유리 기자 yul115@



SK이노베이션은 답을 찾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면
(세계 각지에서 직접 찾아낸다는 답)

매연도 소음도 없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전기를 만든다는 답)

AI시대, 필요한 에너지가 다 다르다면
(누구에게나 꼭 맞는 다양한 해법을 준비한다는 답)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이스온

李 대통령, 경사노위 참여 요청… “싸워도 대화는 해야”

양대노총과 오찬 간담회

한국노총 “경제주체 대타협 절실
정년연장, 하루도 늦출 수 없어”

민주노총 “노정 간 신뢰 회복 선행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으로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양대노총 위원장들에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해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간담회 열고, 노동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만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도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지금 경사노위도 조직을 못하고 위원장도 선정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한번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며 “같이 한번 논의해서 실제 대화를 해야 하지 않나. 결론이 안 나고 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들의 부담 문제, 고용의 안전성과 유

연성 문제를 터놓고 한 번쯤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반도체 연구개발(R&D) 직군 주52시간 적용 예외를 두고 토론회를 주재한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일단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어찌면 있을지도 모르는 적대감과 같은 것도 해소하고 진지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복합 위기와 거대한 전환을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주체들의 과감한 결단에 기반한 대타협이 절실한 시기”라며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각 경제주체를 모아서 일정 기간 동안 속의 과정을 진행해주시고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그 과정과 결정에 있어서 모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 문제를 언급하며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현실적 과제”라며 “이미 국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남은 하반기 동안에 입법에 이르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국정과제의 많은 영역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간의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재기능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노정 교섭을 통해 노정 간 신뢰를 회복 및 구축하고 대화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어제(3일)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런 판단을 한 것은 정부와 노동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노정 관계 형성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K-제조업 재도약 필수… 산업정책, 완전히 재점검해야”

李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추석 앞두고 물가 안정대책 요청
연이은 해킹사고에 보안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재도약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산업정책의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이를 위해선 경제의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다. 하지만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무역질서의 재편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더 이상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선 안 된다”며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 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그저 남보다 빨리, 또 잘 따라가는 전략을 넘어서야 한다.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앞서서 개척하고 선도하는 K-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정부에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가 다행히 2%대를 기록했

다고는 하는데, 농·수·축산물 물가는 작년보다 4.9% 가량 많이 상승했다. 추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물가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주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데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신다.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 데도 대응 또는 예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을 당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다”며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단언했다.

/박태홍 기자

장동혁 “노란봉투법 악영향 우려… 보완 입법 필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방문
글로벌 기업 투자 우려 청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를 방문해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대한 우려를 청취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규제로 지적돼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보완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4일 암참 사무실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2025 암참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보고서를 한 부씩 제공했다.

김 회장은 “보고서엔 (한국의) 노동 유연성, CEO(대표이사) 리스크, 세제, 디지털 경제 규제 등 네 가지 핵심 규제 개혁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전에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참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노동 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의 지역 비즈니스 허브 경쟁

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25 암참 기업 환경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3년 연속으로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 선호도에서 아시아 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또 우수한 인재 풀을 갖춘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지역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지금 현재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도 김 회장의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규제 우려에 공감했다. 장 대표는 “이런 법들이 통과될 때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고통하면서 그 의견을 잘 담아내서 법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당이 그런 노력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의 통과가 노동

유연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다”며 “이미 법이 통과됐긴 하지만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현대자동차 노조에선 신사업이나 해외 공장 증설까지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울산 공장은 사실상 멈춰 서 있는 상태가 됐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이를 추진할 수 있을만큼 의석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노사법을 발의한 상태”라며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만약에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근로를 인정해서 일단 파업을 하더라도 기업 자체의 운영은 될 수 있도록 해야 경영상의 방어권을 기업이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필수·지역 의료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당·정·대 관계자, 협의회 가져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4일 협의회를 갖고 필수 영역과 지역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골자인 필수·지역 의료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수진 복지위 여당 간사,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당·정·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 방안을 안건으로 협의회를 가졌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 즉 지역과 필수 영역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진짜 개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 돌봄 역시 중요한 과제다. 내년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당·정·대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은경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에 전공의 규모가 1만명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의료 체계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또한,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선 필수·지역·공공 의료 강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령화에 따른 간병 수요 급증에 대응해 간병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간사는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두고 입법 속도를 내야 한다는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간사는 “과거부터 필수·지역 의료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니, 입법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필수·지역 의료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쉼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쏠주기보장·간편고지·갱신형 등 생보업계, 건강보험 신상품 경쟁

한화생명, 암·뇌·심 전 주기 보장
미래에셋, 유병자 맞춤 간편고지
동양생명, 환급없는 합리적 갱신
채증·증액·특약확대로 선택지 ↑

주요 생명보험사가 건강보험 신상품을 일제히 선보이고 있다. 공통 화두는 암·뇌·심질환 ‘전 과정’ 강화, 유병자·고령자까지 문턱을 낮춘 간편심사, 초기 부담을 줄이는 갱신형·채증형 설계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H건강플러스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암·뇌·심 질환의 진단부터 치료, 후유장애, 사망까지 종합 보장을 제공한다. 특히 암 수술·항암약물·방사선 치료 보장 한도를 기존 ‘연 1회·최대 10년’에서 ‘보화기간 만기까지’로 넓혔다.

완납 이후에는 보장금액이 최대 2배까지 체증하는 구조를 적용했다. 기납입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활용해 증액 계약을 붙일 수 있다. 계약 일부를 연금 또는 적립형으로 전환하는 옵션도 담았다. 납입 면제는 50% 이상 후유장애, 암(일부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적용된다.

한화생명은 “암·뇌·심질환의 진단부터 치료, 후유장애, 사망까지 종합 보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체증 구조와 증액 서비스, 적립형 전환 기능까지 더해져 고객의 생애 여정을 함께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생명 ‘H건강플러스보험’

미래에셋생명은 초경증 유병자를 겨냥한 ‘M-케어 건강보험(3·10·5 간편고지, 갱신형) 무배당’을 선보였다. 일반 심사 가입이 어려운 고객도 일정 고지기간(3개월·10년·5년)만 충족하면 가입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7월 비갱신형에 이어 갱신형까지 추가해 선택지를 넓혔다.

일부 조건 충족 시 최대 30년간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차별화 포인트다. 가입연령은 만 15~75세, 보장은 최대 100세까지이며, 재해사망·암·뇌혈관·심장 등 핵심담보에 간호간병·입원·수술·장해·항암치료 등 110여종 특약을 더해 설계를 확장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간편고지 시장을 확대해 더 많은 고객들이 건강상태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갱신형 종합건강보험 2종을 동시에 출시했다. 일반심사형 ‘(무)우



동양생명, ‘우리WON하는보장보험’ 2종.

리WON하는보장보험(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를 낮춰 사회초년생에게 적합하도록 설계했다. 간편심사형 ‘(무)우리WON하는간편한보장보험(갱신형)’은 3N5(325·355·365) 기준을 적용해 중증부터 경증 유병자, 고령자까지 가입 범위를 넓혔다.

두 상품 모두 암·뇌·심질환의 진단부터 치료·수술·입원·통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담보 71종, 질병·재해 담보 27종, 기타 4종 등 총 102종 특약으로 맞춤형 보장을 구성한다. 가입 가능 연령은 20년 만기형이 25~80세, 30년 만기형이 25~70세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 시 보험료 부담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

동양생명은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설계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갱신형’ 설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고 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coul.co.kr

카드사 “해외여행객 잡아라”

10월 황금연휴 앞두고 서비스 경쟁
무료환전·수수료면제 등 혜택 확대

오는 10월 황금연휴 기간을 한 달가량 앞두고, 카드사들이 해외여행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최장 열흘 연휴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자, 카드사들이 ‘트래블카드’ 혜택을 강화하는가 하면 공항 관련 혜택을 내놓고 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업권에서 추석 연휴에 맞춰 ‘트래블 카드’ 등 고객 서비스를 확대 중이다.

KB국민카드는 최근 홍콩 관광청과 손잡고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홍콩’을 출시했다. 이 카드는 별도 연회비 없이 해외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행 특화 체크카드다. 홍콩 현지 놀이시설, 교통할인, 맛집 식사 할인 등 현지 밀착 맞춤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전 세계 56종 통화 외화머니(외화를 미리 충전해 두는 환불 서비스) 환전 시 무료 환전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 가맹점과 ATM 이용 시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하나카드 역시 지난 2022년 7월 처음으로 ‘트래블로그’ 카드를 선보인 뒤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하나카드는 최근 트래블로그 수수료 면제서비스인 ‘트래블로스 스위치’를 ‘윈더카드 2.0’에 상품과 연동했다.

별도로 트래블카드를 신청하지 않고도, 윈더카드만으로 수수료 없이 해외 결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표적인 트래블로그 혜택으로는 ▲무료환전 ▲해외이용 수수료 면제 ▲해외 ATM 인출 수수료 면제 등이 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해외여행객이 몰려 있다. /뉴시스

NH농협카드는 다가오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NH페이-여행기대’ 카드 이용 고객 대상 공항 할인 혜택 이벤트를 실시한다. 공항의 마티나 골드라운지 이용권을 일반 기준 3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케이(K) 공항 리무진을 1만3000원에, 공항철도 직통열차를 1만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들이 해외여행객 모객에 힘을 쏟는 배경은 해외 카드 결제액이 늘고 있어서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55억2000만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3.3%,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카드 장당 사용 금액도 오름세다. 직전 분기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 2.9%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여행 시즌 때는 모객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혜택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회사 손익 차원에서 무작정 혜택을 확대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해킹피해 전액 보상할 것”

사이버 해킹 사건 사과문 발표
보안조치 대응 고객센터 운영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사진)가 사이버 해킹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내고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을 약속했다.

4일 조 대표는 “고객 여러분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며 사이버 해킹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는 회사의 보안 관리가 미흡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저와 롯데카드에 있다. 외부 해킹에 의한 침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 사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국내외 모든 의심 거래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조치 대응을 위해 고객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사전 예방 차원을 위해 “외부 침입이 있었던 시기에 해당 서버를 통해 온라인 결제를 하였던 고객들에 대해 최우선으로 카드를 재발급하는 조치를 즉각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직 금융당국의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피해에 대한 대응책도 제

시했다.

조 대표는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전액을 보상해 드릴 것을 대표이사로서 약속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사적 차원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필요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

한편, 지난 26일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해킹 흔적이 발견되자, 금융당국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현재까지 고객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선포식에 참석한 이호성 하나은행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하나은행 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공정거래문화 확산·준법경영 실천
이호성 “신뢰받는 1등 은행 도약”

하나은행은 4일 건전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도입 선포식을 가졌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기업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체계적인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하나은행은 준법 문화 정착을 위한 행동 기준을 정립하고, 모든 임직원이 스스로 행동기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모든 임직원이 법 위반의 위험

성을 공유하고, 법 위반 행위의 선제적 예방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나은행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가며,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투명한 거래 질서의 확립, 사회적 신뢰 증진 등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선도할 방침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손님,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대한민국 1등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도 입했다”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계기로 건전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임직원들의 윤리적 책임의식 내재화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리 기자 yul115@

빗썸, 국민銀 계좌문의 ‘24시간 핫라인’

이용자 편의성 강화 위해
계좌 전담 접수채널 개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제휴은행인 KB국민은행 계좌 관련 문의와 불편사항 처리를 전담하는 ‘24시간 핫라인’ 접수 채널을 개설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은행 계좌 전담 핫라인 개설은 이용자들이 은행 실명계좌 연동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앞으로 빗썸 고객들은 ▲신규 및 기존 계좌 연결 ▲계좌 개설 제한에 따른 빗썸 거래 제한 ▲원화입출금 제한

문제 등 KB국민은행 계좌와 관련된 민원 발생 시, 전담 고객센터나 빗썸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고객들이 은행 계좌 연동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접수 전담 채널을 오픈했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편의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핵심 키워드 AI’… 삼성·LG, 초개인화·친환경 전략 강화

IFA 2025, 독일 베를린 개막

삼성 초개인화 AI 홈 솔루션 공개
LG 유럽 맞춤형 가전 25종 선보여
글로벌 무대 친환경·효율경쟁 가열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인 ‘IFA 2025’가 5일(현지시간) 막을 올린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올해 IFA는 인공지능(AI)을 핵심 축으로 인류가 꿈꿔온 미래의 일상을 현실화하는 스마트홈, 로봇틱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친환경·고효율 등의 기술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나흘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25는 ‘미래를 상상하다’(Imagine the future)를 주제로한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중심으로 쿠쿠전자, 바디프랜드 등 115개 업체가 참가한다. 중국은 TCL·하이센스·하이얼 등 ‘빅3’ 가전업체부터 에코백스·드리미·로보락 등 단일 국가 중 최대 규모인 700개사가 참가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해 전시회를 통해 AI홈 생태계를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AI홈, 미래 일상을 현실로’를 주제로, LG전자는 ‘LG AI가전의 오케스트라’를 주제로 AI가전이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된 미래 스



오는 5일부터 9일(현지시간) ‘IFA 2025’가 열리는 독일 베를린 ‘메세 베를린(Messe Berlin)’의 ‘시티큐브 베를린(City Cube Berlin)’에 위치한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삼성전자 모델이 115형 마이크로 RGB TV를 소개하고 있다.

마트홈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업계 최대 규모인 6235㎡(약 1886평)의 공간을 마련하고 삼성 AI 홈을 통한 사용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알아서 맞춰주는 초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 AI 홈은 일상의 편리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안전까지 돌본다. 방문객들은 삼성 전시관에 펼쳐진 AI 홈을 통해 현실로 다가온 꿈꾸던 미래 일상을 지금 바로 경험할 수 있다.

LG전자는 약 3745㎡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고객이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LG AI홈’ 솔루션과 유럽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

적화된 AI 가전 신제품 25종을 선보인다. 생성형 AI가 사용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복합 명령이나 추상적 지시를 수행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친환경’과 ‘고효율’도 올해 전시회의 키워드다. 올해 IFA에서는 글로벌 가전업체들이 유럽의 강화된 ‘에코디자인’ 지침을 어느 눈높이까지 맞추느냐가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발효된 이 지침은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내구성, 재활용 및 수리 가능성,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요건으로 한다.

삼성전자는 유럽 에너지 효율 세탁기 최고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A등급)보다도 에너지 사용량을 65%나 추가

로 절감할 수 있는 세탁기를 선보인다. LG전자는 에너지 등급 A의 LG 히트 펌프 세탁건조기를 비롯한 ‘유럽 맞춤형’ 신제품 25종을 공개한다.

중국 기업들의 기술 성장 속도도 주목해야 한다. 하이센스는 삼성전자가 공개하는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 RGB TV에 맞선 ‘RGB 미니 LED TV’를 선보인다. TCL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AI 기반 가전제품과 최신 초대형 퀀텀닷(QD)-미니 LED TV, 증강현실(AR) 안경 등을 전시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로보락·에코백스·드리미 등 중국 로봇청소기 업체들도 신제품을 대거 공개할 전망이다.

유럽 현지 업체에서도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독일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밀레는 무선 진공청소기, 냉장·냉동고, 인덕션, 후드 등 혁신적인 신제품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 홈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LG전자 HS사업본부장 류재철 사장은 “IFA 2025는 유럽 생활가전 시장이 고효율 가전과 AI홈 솔루션으로 재편되는 기점이 될 것”이라며 “고객의 삶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는 ‘LG AI홈’ 솔루션과 유럽 고객들에게 꼭 맞는 제품들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한항공

특별 기내식 새단장

최신 건강식단 반영

대한항공이 최신 건강 트렌드와 승객 의견 등을 반영한 특별 기내식을 새롭게 선보인다.

대한항공은 기내식으로 제공하는 식사 조절식 메뉴 7종을 리뉴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내식은 올해 2월 인하대병원 영양팀과 6개월간 레시피를 개발했으며 당뇨, 심혈관질환, 고혈압 등 주요 질환의 최신 임상 진료 지침을 적용해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쳤다.

또 대중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저속 노화 식단과 지중해식 식단, 대쉬(DASH) 식단 등 최신 건강식 트렌드를 식사 조절식에 반영했다. 영양 뿐만 아니라 맛 품질도 향상했으며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요소를 강화했다.

대한항공은 건강상 이유로 맞춤 식단이 필요한 승객에게 의학 및 영양학적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구성된 식사 조절식을 특별 기내식으로 제공한다. 일등석, 프레스티지석, 일반석 탑승객 모두 이용 가능하며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까지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와 서비스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캐스퍼 EV 앞세워 일본서 상승기류

1~8월 판매 648대, 작년치 돌파
인스터 크로스 출시로 성장세

현대자동차가 ‘수입차의 무덤’으로 불리는 일본 시장에서 판매량을 확대하며 의미있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 시장은 자국 완성차기업 판매 비중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수입차 브랜드의 진입장벽이 높은 지역이다.

4일 일본자동차수입조합(JAIA)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 1~8월 일본에서 총 648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전

체 판매량(618대)보다 많은 수치다. 현대차가 올해 일본에 출시한 캐스퍼 일렉트릭(현지명 인스터)이 인기를 끌면서 판매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일본 현지 브랜드를 제외하고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전기차 업체 BYD(2024년 2223대 판매)에 대한 추격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현대차는 오는 10일 일본에서 인스터에 아토틀로 감성을 더한 ‘인스터 크로스’를 출시하고 판매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지난 2022년 5월 준중형 전

기 스포츠실용차(SUV) 아이오닉 5 등을 필두로 일본 승용차 시장에 재진출했다. 달려 없는 온라인 판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며 일본 시장 재공략에 나선 것이다.

특히 현대차는 일본 시장에서 고객과의 점점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일본에서 실시간 화상 상담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현대차 오사카 CXC를 시작으로 센다이와 후쿠오카에 쇼룸을 열었다. 연말까지 도쿄, 사이타마 등으로 오프라인 전시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여기에 현대차는 일본 지역사회와도 적극 소통하고 있다. 실제 현대차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열리는 오사카 엑스포의 브론즈 스폰서로 참여해 친환경 전기버스 일렉시티타운 3대를 협찬했다.

/양성운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동·아프리카 사업 총괄

안보·경제 파트너십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을 위한 거점을 구축하고 안보·경제 협력 확대를 본격화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일(현지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총괄법인(RHQ) 개소식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성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동·아프리카 총괄 사장을 비롯한 한화 방산 계열사 주요 임원진과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문병준 주 사우디 대한민국 대사대리, 아흐마드 압둘라지즈 알 오할리 사우디 군수산업청장 등 양국 정부·방산업계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설립한 총괄법인은 사우디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의 기존 사업을 총괄한다.

특히 사우디의 ‘비전 2030’과 연계해 사우디 군 현대화 사업과 현지화를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등 안보와 경제 파트너십 강화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한화 방산 3사의 육·해·공 무주를 아우르는 통합 설루션으로 지역 내 다른 국가도 적극 공략한다.

성일 총괄 사장은 “총괄법인 출범은 한화그룹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HD현대, 안전 최우선 경영 다짐

정기선 부회장, 현장 안전점검 실시

정기선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HD현대 경영진이 주요 사업장을 둘러보며 ‘안전 최우선’ 경영을 다짐했다.

HD현대는 전 계열사가 일제히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안전점검은 각 사 대표이사 주관으로 이뤄졌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전남 영암에 위치한 HD현대삼호 조선소 현장을 찾아 김재를 HD현대삼호 사장과 함께 주요 설비와 고위험 작업 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어 HD현대삼호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팀장들을 만나 간담회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4일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HD현대삼호 조선소를 찾아 주요 생산 설비와 고위험 작업 현장을 점검했다. /HD현대

를 가졌다.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직원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포스코인터, 中 中企 해외진출 지원 성과 공유

‘2025 상생협력 워크숍’ 개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4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시장개척단’의 3년 성과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에서 열린 ‘2025 상생협력 워크숍: 시장개척단 Re-Connect Day’에는 중소기업 14개사와 협력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개척단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100여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표적인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 해외 지사와 법인이 직접 현지 시장조사와 제품 실증을 지원한다. 계약 협상과 정에도 참여해 중소기업의 수출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022년 프로그램을 본격화한 이후 70여 개 중소기업과 570여 개 해외 바이어를 연결해 1200여 건의 상담을 주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금까지 총 14회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했으며 활발한 비즈니스 협의를 통해 다수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주간

한성숙 “베트남·중·일 등 회담… 中企 협력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 장관, 포럼 등 부대행사 참석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 면담
“베트남 진출 韓 기업 잘 부탁”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응우옌 덕 텡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에게 “베트남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등에서 열리고 있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부대 행사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4일 오전 응우옌 차관과 양자면담을 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베트남 국민경제통합국장을 역임한 응우옌 차관은 기획투자부내 4명의 차관 중 한명으로,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와 같이 국가경제 전략 수립과 계획 수립 업무 등을 하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한 장관은 “오전에 AX(인공지능 전환), GX(녹색 전환), 바이오, 반도체, 글로벌을 중심으로 한 5개 분과가 정책 연구를 발표한 ‘2025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이 있었는데 베트남 차관께서도 관련 내용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면서 “베트남 외에도 이번 행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6번째)이 4일 제주 그랜드 조선에서 열린 ‘2025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기간 중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페루 와도 양자 회담을 갖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아세안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스마트 제조 혁신에 대해 고민하고 한국 중소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정부 간 정책 협력, 기업과 기업 간 교류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5일 예정된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앞서 지난 1일부터 다양하게 열리고

있는 연계 부대행사에는 이날까지 1만 40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도 제주 ICC와 제주 그랜드 조선, 부영호텔 등에서 중소기업, 혁신기업, 스타트업 관련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그중 하나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한국벤처투자자가 협력해 준비한 글로벌 벤처투자 기관 교류·협력 행사인 ‘2025 글로벌 벤처투자 서밋 in APEC’은 국내 벤처투자 행사 중 단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서밋에는 17개 국에서 77개 해외기관이 방문했고, 국

내에선 60여개 투자기관 등이 참여하는 등 총 147개 국내의 기관에서 250여 명이 자리했다.

여기에는 레전드 캐피탈, 버텍스 그로스, 아시아 얼터너티브스 등 글로벌 유력 투자기관들도 함께 했다.

한 장관은 환영사에서 “APEC은 전세계 벤처투자금액의 약 70% 이상이 이뤄지는 글로벌 혁신 허브로서, 이번 서밋은 대한민국이 첨단 제조·IT 강국을 넘어 아시아의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해외 정부기관과 투자자들이 모인 행사를 계기로 대

한민국 벤처생태계와 APEC 생태계가 더 강한 파트너십으로 긴밀히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정책 분야 최대 싱크탱크인 ‘2025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도 열렸다.

올해 포럼 주제는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중점과제인 혁신성장(Innovative Growth)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 혁신, 세계를 연결하다: 닥테크 기반 글로벌 성장전략’이다.

/제주(서귀포)=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김근호·박찬화 은탑훈장 등 222점 유공 포상

〈주인정보시스템 대표·케이티씨 대표〉

중기부, 기술·경영 혁신대전 개최
AI 기반 中企 혁신제품 전시·홍보

김근호 주인정보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등) 대표, 박찬화 케이티씨(IT기기부품)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각각 수훈했다. 합일한 에이치에너지(에너지 공유플랫폼) 대표는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는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와 연계해 4일 제주 부영호텔에서 ‘2025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을 개최했다.

올해 혁신대전에선 훈장 3점, 포장 4점, 대통령표창 20점, 총리표창 30점, 장관표창 165점을 포함해 총 222점의 유공 포상이 돌아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나라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이 된 뜻깊은 해로서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와 혁신대전”을 연계해 개최하게 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APEC 경제 협력체와 교류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경영 혁신 우수 성과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중소기업이 혁신의 엔진이 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미래

를 만들어 가도록 중기부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혁신대전에선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중점과제(Innovative Growth)와 연계해 제조, 생활 등 4개 섹터로 AI기반의 중소기업 혁신제품 23개사를 전시·홍보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이번 기술·경영혁신대전은 이노비즈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혁신의 잠재력과 실질적 기술 경쟁력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4일 제주 부영호텔에서 열린 ‘2025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에서 (왼쪽 4번째부터)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등이 비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중기부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올해 혁신대전은 AI가 이끄는 K-TECH 대표 혁신 기술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어 기업 경영에 활용하길 바란다”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메인비즈협회가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서귀포)=김승호 기자

대동그룹, ‘농업·필드 AI 로봇 산업 발전 협의체’ 출범

뉴로메카, 티랩스 등 8개 기업 참여

대동그룹이 주축으로 농업·필드 AI 로봇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다.

대동그룹은 AI 로봇 전문기업 대동로보틱스와 AI로봇 SW전문기업 대동메이아이랩이 국내 유수의 AI·로봇 기술 기업들과 함께 ‘농업·필드 AI 로봇 산업 발전 협의체’를 출범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대동 계열사 2곳 외에도 뉴로메카, 뉴빌리티, 에이디로보틱스, 코라스로보틱스, 투모로로보틱스, 티랩스 총 8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AI 모델 ▲자율주행 및 자동 매핑 ▲플릿 운영 관리 ▲관제 및 원격제



대동그룹은 4일 ‘농업·필드 AI 로봇 산업 발전 협의체’를 출범하고 국내 우수 AI·로봇 기술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 대동로보틱스 여준구 대표(가운데)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동그룹

어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시설농업·필드로봇용 모바일 플랫폼 ▲로봇 손·팔 등 각 사의 핵심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와 사업화를 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

대동그룹은 대동로보틱스와 대동메이아이랩을 주축으로 올해 음성인식 및 자율주행 운반로봇을 선보이고, 농업 3대 AI 기술 비전을 선포하는 등 농업·필드 AI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협의체를 농업·필드 AI 로봇에 필요한 로봇 팔·손 등 외부 협업이 필요한 영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융합을 가속화함으로써 AI 로봇 분야의 핵심 역할을 한층 더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여준구 대동로보틱스 대표는 “이번 협의체는 단순한 기술 연합체를 넘어 국내 로봇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협력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각사가 보유한 강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농업·필드 로봇 산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HS효성첨단소재, ‘ISCC PLUS’ 인증

임진달 대표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

HS효성첨단소재는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제도인 ISCC PLUS 인증을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ISCC PLUS는 바이오 기반 및 재활용 원료의 지속가능성과 공급망 투명성을 검증하는 국제 표준 인증으로, 글로벌 주요 기업과 기관에서 ESG 경영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원료 조달부터 생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엄격한 검증을 통과해야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에 HS효성첨단소재가 인증받은 바이오 아크릴로니트릴(Bio-AN) 탄소 섬유 생산 공정은 기존 화학 공정과 큰 차

이가 없어 상용화에 유리하다. 또 바이오 아크릴로니트릴로 생산한 탄소섬유 역시 기존 제품과 동등한 성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바이오 아크릴로니트릴의 핵심 원료인 아크릴로니트릴(AN)은 유채씨유, 폐식용유 등 식물성, 재활용 자원에서 추출한 바이오 납사를 활용해 생산돼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임진달 HS효성첨단소재대표이사는 “이번 인증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라며 “앞으로도 저탄소·바이오 기반 소재 개발과 생산에 주력해 글로벌 친환경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삼육대학교

미션, 비전, 열정을 품고 미래를 열어가는 삼육대학교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인성교육에 AI·SW 첨단학문을 더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변화의 힘을 키워갑니다.

입학처 홈페이지



**2026학년도
수시모집 안내**

원서접수처 :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원서접수일 : 2025. 9. 8.(월) 10:00 ~ 2025. 9. 12.(금) 18:00
입학처문의 : 02-3399-3377~9
세부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ipsi.syu.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K-게임, 신작 앞세워 日 시장 공략… 글로벌 확장 분수령

도쿄게임쇼 2025

日, 세계 3대 게임시장으로 꼽혀 K-컬처 열풍, 게임으로 확산 흐름
주요 국내 게임사, 신작 동시 출품
출품작 성패, 글로벌 사업 전략 직결

K-게임이 9월 말 예정된 '도쿄게임쇼 2025'를 통해 일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콘솔과 서브컬처 장르의 본고장을 정조준하며 넷마블·스마일게이트·컴투스·넥슨·펄어비스 등 주요 게임사가 게이머들의 눈길을 끌만한 신작을 대거 선보인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니혼간 일본 지바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 2025는 K-게임에는 전략적 무대가 될 전망이다. 도쿄게임쇼는 매년 20만 명 이상이 찾는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로, 일본은 물론 아시아 전역 게임업계의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자리매김해 왔다. 일본은 콘솔과 서브컬처 장르의 본산으로 꼽히는 만큼 국내 게임사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 게임사들, 자신만만한 신작 앞세워 일본 무대 도전

넷마블은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O rigin)'과 '몬길: 스타 다이브(STAR D IVE)' 두 작품을 전면에 내세운다.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은 글로벌 인기 I P 기반 오픈월드 RPG로 일본 게이머들의 기대가 크다. '몬길: STAR DIVE'는 시연 버전을 통해 전투 시스템과 세계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서브컬처 장르 공세에 집중한다.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지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 2025' 이미지.
/도쿄게임쇼 2025 홈페이지 갈무리



넷마블은 '일곱 개의 대죄: Origin'과 '몬길: STAR DIVE'를 선보인다.
/넷마블

와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를 글로벌 첫 공개하며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두 작품 모두 서브컬처 팬덤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컴투스는 '도원암귀 크림슨 인페르노'를 선보인다. 모바일과 PC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탄체 RPG로, 한중일 문화 요소를 접목한 독창적 세계관이 특징이다. 일본 게이머들이 선호하는 전략적 플레이와 고품질 비주얼을 앞세워 시장 안착을 노린다.

넥슨은 자회사 넥슨게임즈가 개발한 루트슈터 RPG '퍼스트 디센던트'를 출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 TGS2025에 출품.
/스마일게이트

품한다. 지난해 출시된 이 작품은 최근 시즌3 '돌파' 업데이트로 콘텐츠를 확장하며 글로벌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규 업데이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연 공간을 마련해 일본 콘솔·PC 게이머층을 공략한다.

펄어비스는 블록버스터 액션 어드벤처 '붉은사막'을 전면에 내세운다. 지난 독일 게임스컴에서 글로벌 기대를 끌어올린 심화 버전을 일본 게이머들에게 최초로 공개하며, 고품질 그래픽과 사실적인 전투 액션으로 현지 콘솔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노린다. 업계는 붉은사막이 펄어비스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표작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 日에 'K-컬처 열풍' 기대… "장기적 신뢰 쌓는 게 중요"

일본은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게임 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콘솔과 서브컬처 장르가 주류를 이루어 국내 게임사들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온 분야다. 그러나 최근 한국 게임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일본 내 존재감도 커지고 있으며, K-컬처 열풍이 게임으로 확산되는 추세는 호재로 작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콘솔과 서브컬처 취향이 뚜렷한 시장이지만 동시에 글로벌 성공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며 "K-게임이 일본에서 성과를 내면 글로벌 확장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컴투스, 넥슨, 펄어비스 등 주요 게임사가 동시에 전략 신작을 출품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K-게임이 일본 시장을 전략적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다만 현지 콘솔 강자들과의 경쟁, 서브컬처 장르의 치열한 시장 환경은 여전히 큰 도전 과제로 남는다. 일본 게이머들은 게임성뿐 아니라 장기간 서비스를 통한 신뢰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발적 흥행을 넘어 장기적 운영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도쿄게임쇼는 단순 홍보장이 아니라 현지 게이머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무대"라며 "출품작의 성패는 향후 글로벌 사업 전략에도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도쿄게임쇼는 일본 시장 안착 여부를 가늠하는 시험대이자 글로벌 확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넥서스

블록체인 게임사 인수

넥서스가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를 인수하며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확장을 본격화한다.

넥서스는 블록체인 게임 전문 개발사 제트5를 인수하고, 제트5 창업자인 김강수 대표를 프로듀싱 TF장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넥서스는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높인다.

김강수 대표는 서울대학교 공대 출신으로, 하이브에서 모바일 장수 게임 '드래곤빌리지'의 프로듀서와 CSO를 맡은 뒤 2020년 제트5를 창업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게임 개발을 결합하는 데 집중해왔으며, 모바일 MMORPG '픽셀 히어로즈 어드벤처'를 개발한 바 있다.

/최빛나 기자

LG U+

캐릭터 '무너' 문구로 초등학생과 점점 확대

LG유플러스는 무인문구점 문구야 놀자와 함께 키즈 특화 캐릭터 '무너'를 활용한 문구 판매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전국 문구야 놀자 50여개 매장이 무너 특화점으로 운영된다. LG유플러스는 내년 3월까지 점차 확대 운영하고, 이를 통해 무너키즈폰 주고객인 초등학생들과의 접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문구야 놀자는 전국 초등학교 인근 25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무너 특화 매장에 방문하면 무너 캐릭터가 새겨진 호루라기, 볼펜, 필통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제휴에 참여한 캐릭터 무너는 LG유플러스 키즈폰 마스코트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외산 캐릭터가 주를 이루는 키즈폰 시장에서 국산 캐릭터로 초통령이라 불리며 키즈폰 1위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김서현 기자 seoh@

KT SAT

2027년 HTS 발사 목표

KT SAT은 미국 위성제작사 아센다크(AscendArc)사와 차세대 고용량 위성(HTS)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7년 말 발사를 목표로 진행되며, 발사 후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합리적인 가격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T SAT이 아센다크를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는 통신 성능과 제작 단가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 설계 방식 때문이다. 모듈형 조립 라인 방식을 적용해 기존 정지궤도(GEO) 위성 대비 수십 배의 용량을 확보하면서도, 시장 평균 대비 최대 20배 저렴한 1Mbps 당 비용을 제공한다. 또한 기능 유연성을 기반으로 지역 수요에 따라 용량 배분이 가능해 시장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전 직원도 손쉽게 AI 활용… SK AX, '금융 AX' 혁신 앞장

신한은행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기업용 AI '에이닷엑스 플랫폼' 도입 누구나 업무에 맞는 AI 만들어 활용

SK AX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금융 조직에서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금융 AX' 혁신 가운데 하나로 '신한은행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한은행 전 직원이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구현해, 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AI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K AX는 보고서 작성, 고객 데이터 분석, 내부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업무에서 생성형 AI가 실질적인 도구로 자리 잡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SK AX는 SK텔레콤과 공동 개발한 기업용 AI 플랫폼 '에이닷엑스(A.X)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다. 에이닷엑스 플랫폼은 다양한 사전 구축 AI 모델을 업무 목적에 맞게 빠르게 최적화하는 '파인튜닝' 기능과 별도 개발 지식 없이 AI 기능을 블록처럼 조합해 직접 서비스로 완성할 수 있는 '노코드 빌더'를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 직원 누구나 본인 업무에 맞는 AI를 쉽게 만들고,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행 환경을 갖추게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 AX는 에이닷엑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AI 생성부터 실행,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AI 올인원 포털'을 구축한다.

직원들은 포털 내에서 필요한 AI 기능을 검색해 바로 업무에 적용 가능하며, 업무 유형별로 정리된 AI 자산을 별도 설정 없이 재사용할 수 있다.

AI 품질 개선도 자동으로 이뤄진다.

SK AX는 AI 생성, 운영, 피드백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클로즈드 루프' 구조를 통해 사용자 피드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델 성능을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보안 체계도 강화한다. 금융권 기준에 맞춰 ▲단계별 보안 파이프라인 ▲민감 정보 마스킹 처리 ▲사용자 권한별 접근 제어 ▲감사 로그 관리 등 고도화된 보안 기능을 플랫폼 전반에 적용해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연락처 없어도 ‘리멤버 커넥트’로 비즈니스 네트워킹 확대”

리멤버앰컴퍼니, 신규 서비스 선포

리멤버앰컴퍼니는 비즈니스 연결 플랫폼 '리멤버 커넥트'라는 신규 서비스를 선보였다.

인맥 관리에 지친 직장인과 기업가들을 위해 기획된 커넥트는 연락처 공개 없이도 일대일 메시지를 통해 기업인·전문

가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용 네트워킹 플랫폼이다.

커넥트는 리멤버가 지난 수년간 쌓아온 '국내 직장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협업·연사 섭외·멘토링·사업 제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즉시 활용 가능하다.

부적절한 메시지나 스팸이 고객센터로 접수되면 즉시 제재된다. 리멤버는

추후 AI 기반 필터링 기능과 직접 신고 기능을 도입해 부정 사용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리멤버는 커넥트가 기존 네트워킹 방식의 비효율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직장인들은 원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 알음알음 소개를 받거나 SNS 검색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는 회사

/김현정 기자

미술품·한우에도 투자… 코스콤 ‘토큰증권’ 선봉에 서다

투자의 민주화 ‘토큰증권’

‘토큰화’ 거래 비용·시간 줄여
증권사 없이 블록체인망 거래 가능
미술품 유통화, 고가자산 소액투자

‘토큰 증권(ST·Security Token)’ 시장 참여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토큰 증권 법제화가 속도를 내면서다. ‘토큰증권’이란 종이나 전자방식이 아닌 블록체인 인프라를 활용한 증권을 말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서 미술품이나 한우 등 처럼 특별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가 열릴 수 있게 된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토큰증권이 투자의 ‘민주화’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한다. 코스콤은 금융사들을 토큰증권의 세계로 안내하는 길잡이를 하고 있다. 코스콤은 증권사들과 손을 잡고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사업, 스테이블코인 관련 신사업 등 시장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토큰증권 법제화 속도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한 디지털 기반 증권이다. 쉽게 말해 증권이라는 음식이 있다면, 음식을 담은 그릇이 토큰(블록체인)인 것이다. 종이로 주식·채권을 거래하는 실물증권, 인터넷 전산을 통해 거래하는 전자증권 방식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하는 토큰증권으로 새로운 거래 인프라가 추진되는 것이다.

토큰화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거래 비용과 시간 모두 줄어 들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주식을 거래할 땐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중앙화된 서버에 저장된 소유 정보 등을 확인하는 복잡한 결제 방식이 진행된다. 거래 시간도 지연되고 비용도 발생한다.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 매매일 이틀 뒤(T+2)에 계좌로 들어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토큰증권은 암호화된 분산원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아 이과정이 모두 사라진다.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4월 보고서에서 “금융자산을 토큰화해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하면 거래의 신속화, 효율화, 거래비용 절감, 투명성 향상이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도연 코스콤 상무(왼쪽에서 여섯번째)와 류시웅 iM증권 상무(왼쪽에서 다섯번째)가 8월 27일 코스콤 본사에서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코스콤은 6월 17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DB증권과 토큰증권 플랫폼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코스콤은 7월 23일 NICE피앤아이와 토큰증권 가치평가 및 서비스 인프라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TO법안 주도’ 윤창현 사장 지휘 플랫폼 구축, 테스트베드 실증 완료 “스테이블코인 도입 사전설계 전략”

기존에 투자하지 못했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차별화된 장점이다. 지금까지 증권사 등에서 중개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 구매하기 어려웠지만, 고객 확인제도(KYC)로 신원만 인증했다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도 블록체인망을 통해 전 세계에 흩어진 자산을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 있다.

토큰증권에서는 금액이 큰 자산도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고, 미술품처럼 유통화되지 않은 자산도 쉽게 유통화할 수 있다. 일반 개인투자자라면 사기 어려운 자산도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선 토큰증권이 투자의 ‘민주화’라는 말도 나온다.

지지부진하던 토큰증권의 법제화 속도도 낼 전망이다.

지난 6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디지털자

산법)에 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발행·인프라 관리 방안이 담겼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과 ‘토큰증권 법제화’를 언급했던 만큼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토큰증권 중심의 디지털 금융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삼일PwC경영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에는 토큰증권 자산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코스콤, ‘토큰증권’ 인프라 주도

가장 주도적인 곳은 코스콤을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업계다. 기존의 주식과 채권 등부터 토큰화해 먹거리를 찾겠다는 것이다. 코스콤은 최근 iM증권과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키움증권, 대신증권,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BNK투자증권, DB증권 등에 이어 일곱번째 파트너다.

코스콤은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증권사·발행사·유관기

관 등과의 협력 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코스콤이 추진 중인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사업은 다수 증권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독자적 플랫폼을 구축하기 부담되는 증권사들의 비용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 STO 법안을 주도했던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토큰증권 사업을 직접 지휘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취임 후 STO 관련 태스크포스(TF)인 ‘STO사업추진TF부’를 사장 직속부서로 신설하기도 했다. 김완성 코스콤 디지털자산사업추진TF부 부서장은 “자본시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토큰증권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인프라 지원하겠다”며 “법제화 진행에 발맞춰 구체적인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금융기관 및 발행사를 위한 최적화되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

코스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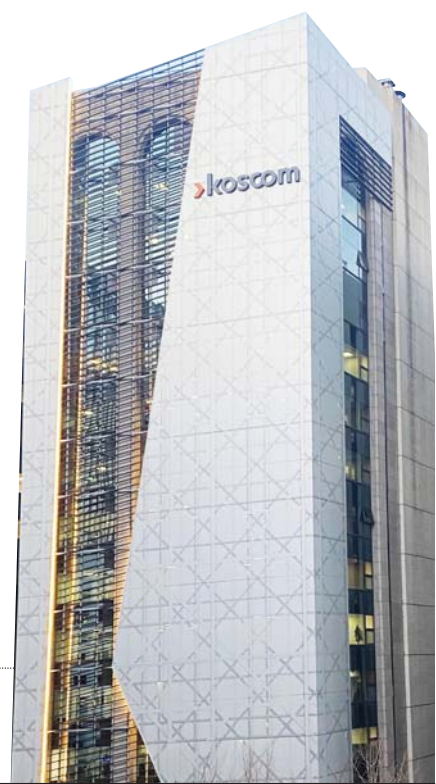
을 더 개선·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토큰증권 법제화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연돼 왔다. 반박되는 난항 속에 업계의 실망이 커졌지만 코스콤은 오히려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며 선제적으로 발행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한국예탁결제원과 총량관리를 위한 테스트베드 실증도 완료한 상태다.

코스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토큰증권 관련 신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토큰증권의 청약·유통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기술검증(PoC)을 진행 중이다. 결제와 청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원자적 결제’(Atomic Settlement) 방식을 통해 자본시장에서도 디지털 화폐 기반의 안정적인 신뢰성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코스콤에 따르면 해당 방식은 자금이 없으면 주식이 이전되지 않고, 주식이 없으면 자금이 전달되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김성덕 코스콤 디지털사업본부장은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이 안전하고 유기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사전 설계·준비하는 전략적 시도”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금융위,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2곳 제한’

시범운영 서비스 제도권으로 편입 플랫폼 난립 막고 유통성 집중시켜

정부가 조각투자 시장의 ‘유통판’을 연다. 음원저작권·부동산 등 기초자산을 사고파는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를 제도화해 최대 2곳에만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플랫폼 난립을 막고 유통성을 집중시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되던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조치다. 지난 6월 조각투자 발행(Primary market) 제도화에 이어 이번 유통(Secondary m

arket)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 개선은 일단락된다.

정부는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로 거래 규모가 크지 않고(2024년 기준 연간 매수거래액 145억원), 플랫폼이 난립할 경우 유통성이 분산돼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가를 최대 2곳으로 제한했다.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사가 2곳 미만이면 그에 맞춰 인가가 부여된다.

신청사가 다수일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2017·2021년), 부동산신탁업(2019년) 인가 사례처럼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한 일괄평가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신청사 사업계획 타당성, 자본력, 건전경영

등을 점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최종 인가 대상을 결정한다.

심사 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일반적인 인가 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유통의 특수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구성 여부,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참여 여부,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은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약 1달간 신청기간을 안내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또 이달 18일에는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인가 설명회도 진행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한국거래소, 공시제도 지역설명회 개최

부산·대구 등 전국 4개지역 대상

한국거래소가 지역별 코스피 상장기업 공시담당자를 위한 주주가치 제고 관련 공시제도 설명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전국 4개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코스피 상장사 공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지배구조공시 등 공시제도 관련 지역설명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배구조공시, 영문공시를 비롯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공시제도 사항을 지역기업에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지역설명회는 이날 부산·울산·경남 지역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 대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설명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

시의무대상이 20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 예정임에 따라 공시의 원활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의 사전 준비 사항과 함께 최근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한 정관 개정안내, 영문공시 활성화 추진과 번역지원 및 지속가능경영 공시 현황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거래소는 “이번 설명회가 지역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인식 전환에 기여하는 동시에 공시제도에 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상장기업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 및 안내자료 배포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KIAT, 전처리 자동화 플랫폼 구축 중소·중견기업 전환 지원 본격화

산업부·14개 기관과 협약 체결
190억 투입해 전처리 기술 개발
플랫폼 공동 활용·개발 본격화
중소기업 맞춤형 AI 지원 속도전
글로벌 AI 강국 도약 발판 마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14개 기관이 협력해 중소·중견기업 AI(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한다.

KIAT는 지난 3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산업 인공지능(AI) 데이터 전처리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하고, 산업 데이터 전처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혁신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 인공지능 데이터 전처리(IDP, Industrial AI Data Preprocessing)는 제조 공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AI 학습에 적합하도록 정리·가공하는 핵심 절차다. 데이터 전처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생산성 향상과 품질 관리, 사전 유지보수 등 산업 현장에서 AI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산업AI 데이터 전처리 네트워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KIAT가 올해부터 시작한 '산업AI용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의 참여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발족했다.

KIAT는 오는 2028년까지 약 190억



곽용원 KIAT 첨단산업공급망단 단장 등이 산업AI 데이터 전처리 네트워크 발족식 이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KIAT

원을 투입해 △데이터 전처리 기술개발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 플랫폼 구축 △업종별 특화 방법론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산업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AI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KIAT를 비롯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센터,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인터엑스, 팅스파이어, 루트17, 인이지, HL만도, 대동기어, 대동금속, 한국남부발전, 서울과학기술대, 한양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산학연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상호 협력해 데이터 자동화 플랫폼을 공동 활용·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AI 데이터 생태계를 조

성하기로 했다.

협약식 직후 열린 혁신 포럼에서는 인터엑스와 인이지가 각각 산업 현장의 데이터 전처리 플랫폼 기술과 AI 전환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산학연 전문가들이 산업 데이터 전처리 기술 발전 방향과 산업계 AI 도입 가속화를 위한 정책·기술적 해법을 논의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AI 기반 제조 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AI 3대 강국 실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남부발전, 신재생 설비 AI 전환 시동

풍력·태양광 결합 판독 데이터 구축
연말까지 AI 학습 기반 체계 마련
민간 연구개발에 전면 개방 추진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사가운데 최초로 신재생 설비 운영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AI 강국 도약'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민간 연구개발 생태계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부발전은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5년도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풍력·태양광 발전설비를 대상으

로 한 '결합 자동 판독 AI 학습 데이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발전소 현장에서 운영 중인 풍력 블레이드 균열, 태양광 패널 파손 등 주요 결함 사례를 포함해 정상·비정상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연말까지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부발전은 구축된 데이터를 공개해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총괄하고, 남부발전이 수요기관으로 설비 실증 환경을 제공한다. 주관기관인 어드바이저로렌, 참여기관인 보다가 데이터 구축과 AI 모델링을 담당하

는 민관 협력 모델로 추진된다.

남부발전은 이번 사업으로 신재생 설비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기업·연구기관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은 남부발전이 보유한 발전설비 운영 노하우와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결합하여 국가 신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에서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정부의 AI 강국 실현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FDI 투자 애로 해소 전담 지원체계 가동

산업부, FDI 이행지원단 출범
제조업·中·日 투자 위축 뚜렷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이후 실제 투자 집행까지 이어지는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지원기구를 출범시켰다. 최근 제조업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국으로부터의 투자 집행이 위축되면서 FDI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4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KOTRA, 서울시,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FDI 이행지원단'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행지원단은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프로젝트를별로 신고부터 도착까지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입지 규제, 인센티브 집행, 인허가 절차 등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조기에 발굴·해소해 실제 투자 집행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최근 5년간 FDI 도착률은 2020~

2023년까지 60% 안팎을 유지했으나, 2024년엔 44.2%로 급락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도착률은 55.6%로 회복세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 투자의향을 밝힌 반도체 관련 기업 등 외국인 투자기업 4개사가 참석해 입지 애로, 입주 제한 해제, 인센티브 지원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부처·지자체·기관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FDI 이행지원단을 상시 운영, 미도착 프로젝트의 애로 해소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특히 KOTRA의 외국인투자유치실, 종합상담실과 연계해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FDI 도착금액은 7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도착기준 실적을 보면 서비스업과 미국·기타지역 투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세종=한용수 기자

멀티탭·콘센트 사고 5년간 387건 발생

산업부 국표원, 안전주의보 발령

가정 내 필수 가전 사용 확대와 함께 멀티탭·콘센트·플러그 과부하로 인한 화재·화상 사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피해의 절반이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집중돼 보호자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멀티탭 등 안전사고가 총 387건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연도별 사고 접수 건수는 2020년 79건, 2021년 52건, 2022년 62건, 2023년 93건, 2024년 101건으로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

사고 원인 중 감전·누전·합선 등 '전기 관련'이 44.7%로 가장 많았고, '화재·과열' 25.1%, '물리적 충격' 16.8% 순이었다. 사고 장소는 84.6%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증상은 화상 48.3%, 전선 손상 17.5% 등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에어컨 등 냉방기 사



진주소방서, 여름철 멀티탭·콘센트 화재. /뉴스1

용이 많은 '여름'(32.3%) 외에도 '가을'(26.1%)에도 안전사고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연령이 확인된 사례 239건 중 절반(48.1%)이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 등은 소비자에게 ▲멀티탭 정격용량 초과 금지 ▲멀티탭 중첩 사용 금지 ▲고소비전력 제품은 전용 콘센트 사용 ▲전선 손상 방지 관리 등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폴리텍대, 차세대 전력인재 양성 본격화

나주 '전력기술교육원' 개원

한국폴리텍대학이 4일 전라남도 나주시에 '전력기술교육원'을 개원하고 차세대 전력산업을 이끌 기술인재 양성에 본격 나섰다.

이번 교육원 설립은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조성에 맞춰 입주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한전·전력거래소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과 연계해 현장 맞춤형 전문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다. 나주는 '에너지 수도'로 불리며 전력·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하순),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남 시의회의장 등 주요 인사와 한전·전력거래소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전력산업 인재 양성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전력기술교육원은 총 306억원(건립비 236억원, 장비비 70억원)이 투입돼 1만5764㎡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5050㎡ 규모로 건립됐다. 2층 전력설비과, 3층 신재생에너지과·전기소방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되며, 산업현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한 '전력IT수배전랩(LAB)' 등 실습시설도 갖췄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용부, 근로감독관 새 이름 국민 공모

25일까지 3주간 명칭 공모 진행
노동부 홈페이지·SNS로 참여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바꾸기 위해 국민 의견을 직접 묻는다. 노동부는 4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근로감독관 명칭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객관식과 주관식 방식으로 병행된다.

근로감독관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수사해 왔다. 최근에는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취약 근로자 보호, 노동권 보장, 산업현장 안전 확보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역할을 수행하며, '노동행정의 최일선 주

체'로서 위상이 한층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명칭 공모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보다 국민 친화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이름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공모 결과는 국민 참여 의견과 함께 내부 직원 및 노동·산업안전 관계자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노동부는 새 명칭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노동관계법 집행과 예방 지도 기능을 강화해 '민생 노동행정'의 최전선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면 자유전공제를 통해
다양한 전공을 경험하고
마음껏 배우며 즐겁게 꿈꿀 수 있는 곳.
덕성에서 당신의 가능성을 펼쳐보세요.

나를 가장 나답게!

덕성여자
자유전공

이은빈 재학생
(영어영문학전공 24학번)

전공의 틀을 넘어 나만의 길을 열다

수도권 대학 최초 전면 자유전공제 도입
자유전공학부 100% 인원 제한 없이 제1전공 선택

※ 단, 유아교육과, 약학과, Art & Design대학, 미래인재대학(가상현실융합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AI신약학과) 제외



서울시, 트램 운영 속도낸다 위례선 ‘예비주행시험’ 돌입

초저상 구조… 내년 개통 목표
마천역~북정역~남위례역 연결
위례신도시 교통난 해소 등 기대

58년 만에 서울을 다시 달리게 될 트램(노면전차) 위례선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9월 초부터 약 한 달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송시험선 구간에서 위례선(트램) 초도 편성에 대한 ‘예비주행시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전국 최초 무가선 노면전차로, 마천역(5호선)에서 출발해 북정역(8호선·수인분당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연결한다. 총 연장 5.4km로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만들고 전동차 10편성을 투입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예비주행시험’은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편의성과 안전 확인을 위한 위례선 트램사업의 핵심 관문으로 시험기간 동안 총 5000km 이상을 주행하게 된다. 시험 중 ▲가속·제동 ▲곡선주행능력 ▲통신·신호시스템 연동 ▲승차감 ▲소음·진동 등을 종합 점검해 차량 성능과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 시민들이 안심하고 트램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노면전차는 도로를 공유해 운행하는 특성상, 위례선 전 구간에 13개 교



트램차량(오송)

(서울시

차로와 35개소의 횡단보도가 설치되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교한 시스템 점검이 필수적이다. 시는 예비주행시험 기간 동안 다양한 사전 시험 운영을 실시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 차량은 노약자,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초저상 구조로 제작했다. 국내 최초 무가선 트램(노면전차) 특성상 전기선이 없는 대신 지붕에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에너지원으로 삼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것이 특징이다.

또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를 융합한 ‘전방 충돌경보 장치’를 적용해 장애물 감지 시 기관사에게 조기경보를 울리

고 반응이 없을 경우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서울시는 예비주행시험을 마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위례선 본선 구간 종합 시험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철도 운영기관과의 인수·인계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위례선 트램을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김용학 서울시 도시철도국장은 “예비주행시험은 위례선트램 개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트램운행을 통해 이동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시험과 검증을 철저히 실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260개 학원, ‘7세 고시’ 등 384건 법령 위반”

교습정지·과태료 등 433건 행정처분
“레벨테스트 부작용 해소 입법 추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260개 학원에서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유아 영어학원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시행하는 학원은 23곳으로 파악됐다. 이번 전수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 시행 등 사교육 조장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위반 학원에는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70건(총 4000만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조사에서는 특히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하거나 유아 선발 목적으로 사전 등급시험을 실시한 학원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했고, 총 23개 학원이 레벨테스트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3곳은 선발 시험, 20곳은 반 편성 목적이었다. 교육부는 해당 학원들에 대해 상담·추진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밖에 ▲가짜, 과대 광고(62건) ▲교습비 게시위반(61건) ▲교습비 초과징수(53건) ▲광고 시 명칭 등 미게시(46건) ▲시설위반(25건)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사전 등급시험을 유지하거나 ‘영어유치원’ 광고를 지속하

는 학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학부모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아울러, ‘7세 고시’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학원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효율적인 지도·규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해 사교육 부작용을 막고,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인천시 “내년 인천항 재개발 전담조직 가동”

해수부 전담인력이 관리·기획 업무

인천항 내항 재개발을 전담할 해양수산부 인력이 2026년부터 가동된다.

인천시는 4일 “해양수산부 내 전담인력 신설 안건이 정부와의 협의를 마쳐 2026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과 함께 ‘인천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체계적인 항만 재개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립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해양수산부는 ‘인천항내항재개발전담조직 신설’ 내용으로 하는 2026년도 정기직제 반영 안건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인천시는 국회(지역구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등을 지속 방문하며 내항 재개발 전담조직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왔다.

이번 정기직제 반영으로 인천항 내항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단계적 재개발에 맞춰 ‘인천항내항재개발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사진)은 “정기직제 반영은 정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정책 교감의 성과이며, 인천항 내항 재개발이 국가정책으로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1단계 사업의 적기 착공을 시작으로 재개발 본격화와 함께 원도심의 혁신적 변화를 신속히 이끌겠다”고 밝혔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경기 청년 결혼지원사업 12000쌍 신청

경기도 4.5대 1 경쟁률 기록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 2,650쌍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 청년 결혼지원사업’ 모집 결과, 총 12,029쌍이 신청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 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4년 청년참여기구 제안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 완료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등 네 가지를 모두 충족

해야 한다.

지난 달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 24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남성 평균 연령은 31.8세, 여성은 30.5세였으며, 2024년 합산 평균 소득은 5,078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217쌍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1,018쌍), 고양시(880쌍)가 뒤를 이었다.

도는 신청자의 자격과 제출 서류를 검증하고,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전년도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2,650쌍에게는 11월 중순부터 100만 원이 지급된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윤윤수 회장, 한국외대 발전기금 10억 기부

〈미스토홀딩스〉

윤윤수 미스토홀딩스 회장(정치외교학과 66학번)이 모교 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해 발전기금 10억 원을 기부했다.

한국외대는 지난 달 22일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후기 학위수여식에 특별 축하 모교를 찾은 윤 회장은 박정운 총장 등 주요 보직자들과 함께 발전기금 기부 서명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윤윤수 AI 석좌교수 기금’으로 조성돼, 한국외대의 AI 분야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



발전기금 기부 증서와 함께 기념 촬영하는 윤윤수 미스토홀딩스 회장(왼쪽)과 박정운 한국외대 총장

/한국외대

양성과 학문적 성과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라이즈센터장 공개 모집

8일부터 16일 14시까지 공모 접수

올해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는 전담기관인 서울라이즈센터장을 본격적으로 이끌어 갈 서울라이즈센터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라이즈센터장은 라이즈 사업의

컨트론타워로서 ▲사업 기획·집행·성과관리 총괄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교육부와와의 협업 ▲서울 소재 대학, 산학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관리 등을 수행한다.

지원 자격은 ▲해당분야(행정, 교육)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 연구경력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11

년 이상 관련분야(행정, 교육) 연구·실무경력자 ▲관련분야(행정, 교육) 13년 이상 경력자(공무원 퇴직자 가능) 등이며, 임기는 1년이다. 공모 접수는 오는 8일부터 16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서류심사는 18~19일, 면접심사는 23~24일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접수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은 서울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고려대, RISE 사업 인력교류 활성화

고려대학교가 지난 달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한인과학기술자대회(EKC 2025)에 참여해 국제 공동연구와 산학협력 기반 확대와 RISE 사업을 통한 인력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4일 밝혔다.

이번 참여는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에 따른 전

략적 대응의 일환으로, 유럽 현지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연구 및 펀딩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려대는 행사 기간 중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대학의 연구 역량과 국제 협력 성과를 소개하고, 현지 연구자 및 기관 관계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이현진 기자

“모든 문제, 상식적으로 진행돼야” 콜마 창업주 윤동한, 법정 첫 출석

법정서 ‘경영권 분쟁’ 입장 밝혀

콜마비엔에이치는 지난 3일 대전고등 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창업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고 4일 밝혔다.

콜마그룹 창업자인 윤 회장이 콜마그룹 내 경영권 분쟁에 대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 대표 이사인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한 행위가 경영합의 및 회사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신청인은 해당 행위가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법행위이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그 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는 법원의 출석 통지를 받은 윤동한 회장이 직접 참석했고, 윤여원 대표도 함께 출석했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 윤 회장은 변호인 변론에 앞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저는 한국콜마를 창업한 윤동한”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이런 쟁송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먼저 법정에 서게 하여 할 수 없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대법 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콜마비엔에이치, 특별항고 제기

“창업자, 회사 미래 위해 법정행 법·원칙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

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경영권 분쟁의 발단이 윤상현 부회장 측에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어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심경을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콜마비엔에이치 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고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

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날(3일) 진행된 항고심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각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콜마비엔에이치 관계자는 “창업자가 평생 일군 회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쌍방에 9월 7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고, 법원의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정을 감안해 9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하림, 오!늘단백 체험단 ‘오단즈’ 모집

15일까지 SNS 링크 통해 신청
30명에 제품·굿즈 패키지 제공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고단백 간식 브랜드 ‘오!늘단백’의 소비자 체험단 ‘오단즈’ 1기를 모집한다.

‘오!늘단백’은 하림이 ‘분리담가슴살단백질(ICBP)’을 활용해 만든 프리미엄 단백질 간식 라인이다. 달콤한 맛은 물론 완성도 높은 영양 설계로, ‘저속노화’, ‘헬시플레이저’ 트렌드가 꾸준히 이어지자 식단을 관리하는 이들에게 건강하면서 달콤한 간식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다방면으로 사랑받고 있다.

‘오단즈’는 ‘오!늘단백’을 즐기는 소비자들을 뜻하는 애칭으로, 단순 체험단을 넘어 하림과 함께 건강하고 달콤한 일상을 추구하는 팬덤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모집을 시작했다. ‘오단즈’ 체험단으로 선정된 30명에게는 ‘오!늘단백 초코바(2종)’와 ‘오!늘단백 라떼

(3종)’ 전 제품이 제공되며, 텀블러, 스포츠 타올, 리유저블 쿨러백 등 꾸준한 운동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특별 제작한 굿즈 패키지도 함께 증정된다.

‘오!늘단백 초코바’(밀크초코 피스타치오, 밀크초코 카라멜)는 부드러운 밀크초코 코팅에도 불구하고 당 함량이 3g에 불과하며, 개당 16g의 단백질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담아 달콤한 풍미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오!늘단백 라떼’(카라멜라떼, 초코라떼, 들체라떼)는 카페 수준의 맛을 구현하면서도 21g의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 9종을 제공하는 완전 단백질 음료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하림 공식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공지된 구글폼 링크를 통해 하면 된다. 활동기간 동안 체험단은 제품을 직접 경험한 후 개인 SNS에 후기를 업로드하고, 간단한 설문조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선보인 미디어 아트 모습



/신세계면세점

신세계스퀘어에 ‘폴앤바니 쇼핑’ 온에어

신세계썬 명동점에 미디어 아트

신세계면세점이 명동점 외벽 초대형 미디어 전광판 ‘신세계스퀘어’를 통해 새로운 미디어 아트 영상 ‘쇼핑 테마파크’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9~10월 성수기에 맞춰 선보였다.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강화하고 상권 내 대표 상징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다.

영상은 신세계면세점의 자체 캐릭터 ‘폴앤바니(Paul+bani)’가 선물상자 속 세계를 여행하며 패션, 뷰티, K-스타일 등 신세계면세점 공간을 탐험하는 이야기로 구성됐다. 후반부에는 실제 명동점

매장 공간과 연결되며,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쇼핑 여정을 안내한다.

또한 아나몰픽(Anamorphic) 3D 기법을 적용해 캐릭터가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듯한 입체감을 구현했다. 영상의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적 요소인 리본 시물레이션은 물론, 남산·명동 거리·매장 외관을 반영한 실사풍 배경 등을 통해 몰입감과 생동감을 더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명동점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지로 자리 잡은 만큼, 쇼핑을 여행과 축제의 차원으로 확장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명동 상권의 대표적인 체험형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클라우드 논알콜릭 모델에 ‘안성재 셰프’

롯데칠성음료, 배너·기획전 공개
요리에 완벽한 전문성 추구 모습 부합

롯데칠성음료가 ‘안성재’ 셰프를 논알코올 맥주 ‘클라우드 논알콜릭’ 광고 모델로 발탁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완성형 논알코올 맥주 ‘클라우드 논알콜릭’과 요리에 대해 완벽한 전문성을 추구하는 안성재의 모습이 부합해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

안성재 셰프는 2024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쉐린 가이드 3스타를 획득한 파인 다이닝 식당 ‘모수’의 오너 셰프다. 2024년 하반기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요리 서바이벌 방송 ‘흑백요리사’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전문적인 평가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가 만든 완성형 논알코올 맥주’라는 콘셉트로 안성재 셰프와 함께 클라우드 논알콜릭의 가



치를 알리는 광고를 선보인다. 광고는 대형마트, 편의점 뿐만 아니라 롯데칠성음료 공식 직영점 ‘칠성몰’을 포함한 온라인 채널 등에서 배너 광고, 기획전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클라우드 논알콜릭은 특수 효모를 사용해 발효 시 알코올 생성을 제한하는 클라우드만의 제한 발효 제조 공법이 적용된 논알코올 맥주다. 생산 공정상 인위적인 알코올 분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 맛과 향의 소실이 없는 자연스러운 맥주의 풍미가 특징이다.

독일산 노블홀과 호주, 캐나다산 맥아 등을 사용해 풍부한 맥아 향을 느낄 수 있으며 350ml 기준 50kcal로 칼로리 부담을 낮췄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안성재 셰프와 함께 완성형 논알코올 맥주 클라우드 논알콜릭의 가치를 알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클라우드 논알콜릭과 함께 부담 없이 차별화된 풍미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이마트24, 삼각김밥 ‘1+1 타임세일’

한달간 오전 8시~오후 5시 진행

이마트24가 삼각김밥 전 품목 대상 ‘1+1 타임세일’ 행사를 9월 한 달간 진행한다

이마트24는 점포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동일한 가격의 삼각김밥

2개를 모바일 또는 실물 티머니카드로 결제 시 1+1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한다. 가장 저렴한 ‘900삼각김밥’의 경우 2개를 900원에 구입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개당 450원에 구매 가능하다.

이마트24는 개학 시즌을 맞아 편의점 주 고객층이 초·중·고 학생인 점을 고려

했으며, 특히 등하교 시간이 타임세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과 최근 외식물가 부담이 커진 직장인 등을 위해 이번 삼각김밥 1+1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마트24는 앞으로도 가격, 맛, 품질 등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들과 행사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손종욱기자

롯데온, 10일까지 ‘자이언츠 데이’ 행사

롯데GRS 등 전 계열사 특가 선택

롯데쇼핑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롯데온이 롯데 자이언츠의 선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전사 쇼핑 축제 ‘자이언츠 데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롯데GRS, 롯데호텔, 롯데시네마, 롯데칠성, 롯데웰푸드, 롯데월드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해 일자별 특가 상품을 선보인다.

롯데면세점은 행사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3000명에게 16달러 스펙셜 포인트를 증정한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4일부터 1·3만 원 금액권을 10% 할인가에 선보이며, 해당 금액권은 세븐일레

븐 앱 내 롯데온 전용 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4일 롯데리아 불고기버거세트 지류권, 5일 김해 롯데위터파크 특가권, 6일 롯데시네마 앱 전용 1인 관람권 및 팝콘 세트, 7일 롯데호텔 김치 최대 25% 할인 혜택 등이 준비돼 있다.

행사 기간 동안 롯데온 내 인기 브랜드를 모은 ‘탑브랜드 특가전’도 진행된다. 이달 4일에는 잔스빌·한샘, 5일에는 앙블랑·농심, 6일에는 오리온·정관장 추석선물세트 등을 특가로 선보인다.

행사 기간 롯데온에서 1원 이상 구매한 엘포인트 통합회원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열린다.

/손종욱 기자

리만코리아, 제주 용암해수 등 화장품 원료 차별화 ‘구슬땀’

세계 유일 신제품 개발 기술력 갖춰
‘자이언트 병풀’ 직접 재배·연구
‘아이씨디’ 브랜드 사업 본격 추진

K뷰티가 ‘원료 차별화’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리만코리아는 세계 유일 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국내 대표 천연자원인 제주도 용암해수를 활용하는 등 독자적인 원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4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제주 서귀포에 마련한 리만팜에서 ‘자이언트 병풀’을 직접 재배하며 연구개발하고 있다. 리만코리아가 지난 6년에 걸쳐 올해 3월 완공한 리만팜은 첨단 시설을 도입한 스마트팜으로 자이언트 병풀 생산지다.

자이언트 병풀은 앞서 2019년 신제품으로 출원됐다. 이후 2022년 7월에는 국내 산림청을 통해 식물신제품보호법 제54조에 따라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이름을 올렸다. 100% 국내산 제주 병풀에서 엄선한 핵심 원료라는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자이언트 병풀은 고기능성 원료로 일반 병풀과는 DNA가 달라 피부 재생, 항산화, 항염 등에서 다양한 생리 활성 작



리만팜은 재배동과 연구동으로 구분되며, 자이언트 병풀이 자라고 있다.

/리만코리아

용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습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생산하는 능력은 일반 병풀 대비 48%, 주름 개선을 위한 콜라겐발현량은 일반 병풀 대비 63% 높다. 최근에는 이러한 생리 활성을 공유하며 자이언트 병풀에서 공생하는 미생물 연구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자이언트 병풀 유래 유산균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고 이너뷰티 등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리만코리아는 자사 화장품 브랜드 ‘아이씨디’ 사업을 본격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주원료인 자이언트 병풀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둔다.

리만코리아는 리만팜을 통해 한눈에 보기에 일반 병풀보다 2~4배 우수한 앞의 크기, 건조하지 않는 생육 과정, 재배 기간 등 각종 데이터를 최적화해 구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리만팜은 자연 채광에 적합한 개방형 구조로 설계됐고 특수 소재 ETFE 천장을 설치했다. 병풀은 자외선을 충분히 받아야 유효 성분이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섬진강 모래 배드를 구축한 것도 재배 경쟁력을 높인다. 제주 바다의 모래는 염분이 많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육지 모래를 들여왔고 미네랄 중심의 성분, 입자 등 세분화한 요소를 반영했다. 재배 기술은 충북농업기술원과 기술사용권 계약을 체결해 특허 기

술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리만팜이 제주 용암해수 산업단지 옆에 위치한 것도 특징이다. 일반 화장품이 정제수를 사용한다. 이에 비해 리만코리아는 제주 용암해수를 기반으로 천연 미네랄, 영양 염분 등을 집약한 ‘용암병풀수’를 완성했다.

이와 관련 서대방 병풀연구소장 상무이사는 “리만팜의 핵심 경쟁력은 최적화, 표준화, 원료 양질화에 있다”며 “화장품에 가장 적합한 자이언트 병풀을 재배하기 위한 조건을 제주에서 찾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주는 물류비와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일반적으로는 제조시설이 잘 들어서지 않지만, 리만코리아는 약 100억원 수준의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다”며 “리만팜에서 재배 환경을 표준화하고, 자이언트 병풀과 제주 용암해수를 결합해 원료화하는 단계를 무한 반복해 제품 고도화를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리만코리아 원료 연구 및 제품 개발을 총괄하는 이태희 에스케이비스 대표는 “혁신 소재인 자이언트 병풀이 글로벌 무대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AGE20'S

日 스킨케어 시장 공략

‘비타씨 스킨케어 톤업 베이스’ 선보

에이지투웨니스(AGE20'S)에서 촉촉하고 생기 있는 스킨케어는 물론 핑크빛 톤으로 피부를 균일하게 정돈해 주는 ‘비타씨 스킨케어 톤업 베이스(사진)’를 일본 시장에 선보였다.



AGE20'S 비타씨 스킨케어 톤업 베이스는 발효 복숭아와 3종 비타민C 성분을 함유해 민낯으로부터 밝아지는 스킨케어링 톤업 베이스이다. 비타민C, 펩타 비타민C, 히알루론산비타민C 등 3가지 비타민C 성분과 함께 복숭아 세라마이드 성분을 복합 처방해 피부 장벽 강화는 물론 피부에 수분감과 화사함을 제공한다.

AGE20'S는 비타씨 스킨케어 톤업 베이스를 라쿠텐, 큐텐 재팬, 아마존 재팬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며, 하반기 일본 대규모 쇼핑 축제인 라쿠텐 슈퍼세일 및 큐텐 메가와리 행사에도 참여해 일본 현지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글로벌 처방 가속화

호주에 ‘스테키마·옴리클로’ 판매
뉴질랜드서 앵토즈마 등 출시 계획

셀트리온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와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옴리클로’를 호주에 출시하며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섰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들은 셀트리온 호주 법인과 현지 유통 파트너사인 아로텍스(Arrotex)에서 각각 판매를 담당해 영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호주 제약 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으로, 각 유통사가 주력하는 공급 채널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판매망을 더욱 촘촘히 타겟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셀트리온

회사측에 따르면 호주의 병원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통상 입찰 방식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반면, 자가 투여 제품은 약국 등 공급 채널을 대상으로 한 영업 활동을 통해 시장을 넓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해 입찰 성과를 높이는 한편,

적극적인 영업 활동으로 판매망 확대에 주력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바이오시밀러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인 호주 제약 산업 특성이 더해지면서 제품의 시장 확대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호주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가가 낮은 바이오시밀러 허가 절차 간소화 등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유도하는 각종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다.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호주에서 램시마 제품군은 5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램시마SC’(피하 주사제형)는 단독으로 27%의 점유율을 달성했다.

뉴질랜드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허주마는 지난 2022년 뉴질랜드에 출시된 이후 트라스투즈맙 정부 입찰에서 계속 낙찰에 성공해 왔다.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허주마는 뉴질랜드에서 100%에 근접한 점유율을 나타냈다. 셀트리온 뉴질랜드 법인은 올 3월 ‘베그렐마’를 새롭게 출시하면서 항암제 간 시너지를 적극 활용해 처방 성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6년에 ‘스토보르로-오센벨트’ 및 ‘앵토즈마’를 출시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김지태 남부아시아 담당장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제도 환경 및 시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판매 전략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후속 제품 출시를 통한 포트폴리오 강화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제약바이오協, 17일 ‘상생교류회’ 개최

신기술 기반 협력 사례 공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오는 17일 오후 5시 JW메리어트 서울에서 ‘2025 바이오 상생교류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바이오 상생교류회는 제약사와 바이오 벤처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통해 협력 기반을 굳건히 하고,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산업 교류의 장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경험과 신기술 기반 협력 사례가 공개된다. GC녹십자 허

정호 팀장이 ‘GC녹십자의 오픈 이노베이션 경험과 lesson learned’를 발표하고, 인벤티지랩 김동훈 부사장은 ‘인벤티지랩의 DDS 플랫폼 기술 기반 파트너십’을 소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오픈 네트워킹 및 만찬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협력 기회를 논의하고 신규 파트너십을 발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2025 바이오 상생교류회’는 제약사 및 바이오벤처 임원이면 누구나 사전 등록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등록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및 안내 공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HK이노엔, 코로나19 변이 백신 유통

한국화이자와 NIP 코프로모션 계약

HK이노엔은 지난 달 27일 한국화이자 제약과 2025~2026절기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백신 ‘코미나티 엘피에이트원 프리필드시린지(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코프로모션 계약 체결을 통해 HK이노엔과 한국화이자 제약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프로모션의 영역까지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

‘코미나티 엘피에이트원프리필드시린지’는 12 세 이상에서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코로나 19의 예방을 적응증으로 지난달 29일 새롭게 식약처에서 허가 승인됐다. 이전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근육주사로 0.3 mL을 1회 투여하며, 이전에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 받은 경우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후에 투여해야 한다.

HK이노엔 과달원 대표는 “민간 및 국가 예방접종사업 유통에 이어 이번 국가 예방접종사업 코프로모션 계약까지 확대하게 돼 뜻깊다”며 “당사의 영업·유통 역량을 기반으로 ‘코미나티 엘피에이트원프리필드시린지’의 안정적 공급 및 공공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LG화학

‘타우로키트’ 독점 판매

LG화학은 4일 유케이케미칼이 개발해 최근 품목허가를 받은 ‘유케이타우로키트 2%주(이하 타우로키트)’를 도입, 국내 독점 판매한다고 밝혔다.

타우로키트의 주성분인 타우로리딘(Taurolidine)은 체내 합성 아미노산인 타우린에서 유래한 물질로, 생물의 세포 벽에 비가역적으로 결합하여 항균 작용 활성 유도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복막염, 뼈와 연조직 손상, 흉막강 농양 수술 시 타우로키트를 수술부위 세척액으로 사용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제2회

 G밸리 Gvalley Art Show
아트쇼

그림 속에서
나를
발견
하다

STEP1. 푸른 청춘의 외침展

2025. 9. 1월 - 9. 13토

관람일시(월요일~토요일) 11:00 - 20:00 *일요일휴관

STEP2. AI아트展 & AI영상 광고展

2025. 9. 15월 - 9. 27토

관람일시(월요일~토요일) 11:00 - 20:00 *일요일휴관

STEP3. 디지털에 마음을 담다展

2025. 10. 22수 - 11. 8토

관람일시(월요일~토요일) 11:00 - 20:00 *일요일휴관

가산 **SK V1 center** 20F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아쿠아픽 본사 내)

*전시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청년작가 및 AI작가 전시지원에 사용됩니다 *전시 및 작품 문의 02-6743-3303

주최 **G밸리아트쇼 조직위원회**

 **KIBA**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Korea Industrial Business Association

주관 **SOHWASO**

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aquapick** 아쿠아픽 가산 **SK V1 center**

현대차, 美 넘어 인도·유럽 소아암 환아에도 희망 전달

‘현대 호프 온 휠스’ 27주년 기념행사
美 소아암 인식의 달 맞아 진행
생존율 향상·치료기술 발전에 기여

현대자동차가 소아암 환아에 대한 지원을 미국을 넘어 유럽과 인도로 확대한다.

현대자동차는 딜러와 함께 설립하고 후원하는 소아암 치료·연구 지원 비영리 단체 ‘현대 호프 온 휠스’가 2026년부터 유럽과 인도에서도 프로그램을 시행해 더 많은 소아암 환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는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27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차 관계자와 미국 주요 딜러를 비롯해 미국 의사협회 및 소아암 관련 단체 관계자, 소아암을 극복한 어린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현대 호프 온 휠스’ 27주년 기념행사에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 오른쪽은 랜디 파커 현대차 북미권역 본부장, 왼쪽은 케빈 라일리 현대 호프 온 휠스 부의장과 어린이 홍보대사와 관계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들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이달 미국 소아암 인식의 달을 맞아 진행됐다. 현대 호프 온 휠스는 지난 27년간 지원해온 연구 성과를 조명하며 소아암 생존율 향상과 치료 기술 발전에 기여한 발자취를 되새겼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미국 암협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어린이 암 환자의 약 85%가 5년 이상 생존하고 있다”며 “이는 1975년 56%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지난 수십 년간 치료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중요한 진전”이

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 호프 온 휠스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린 생명들을 돕는데 함께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내년에는 유럽과 인도도 활동 범위를 넓혀 더 많은 환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998년 미국에서 시작된 현대 호프 온 휠스는 현대차 미국법인과 850개 이상의 미국딜러가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다. 올해에만 미국에서 2700만달러 규모의 연구·프로그램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누적 기부금은 2억7700만달러에 달한다.

올해부터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도 각국의 현대차 법인과 딜러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시작하며 북미 전역으로 프로그램이 확장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스텔라 아르투아, 권성준 셰프와 캠페인

벨기에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스텔라 아르투아(Stella Artois)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우승자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와 함께 ‘스타 스탠다드(The Star Standard)’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명 ‘스타 스탠다드’는 별처럼 빛나는 최고 기준과 최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스텔라 아르투아



홈쇼핑, 급식조리사 양성 지원

홈쇼핑은 지난 3일 취약계층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급식조리사 양성지원사업’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총 5000만원을 지원해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급식조리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다.

/홈쇼핑

LG, 글로벌 랜드마크서 ‘APEC’ 알린다

美 타임스퀘어, 英 피카딜리광장과
서울 곳곳서 APEC 홍보영상 송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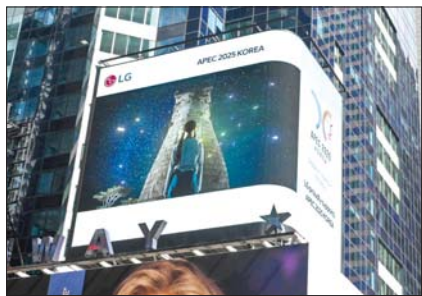
LG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이하 APEC)’를 글로벌 랜드마크에서 알리고 있다.

LG는 지난 2일(현지시간)부터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광장 등 세계적 명소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 제작한 APEC 홍보영상을 내보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영상은 첨성대, 얼굴무늬 수막새기와, 금관 등 경주의 대표 문화유산과, APEC 공식 홍보대사인 지드래곤을 비롯 블랙핑크, BTS 등 주요 K-팝 아이돌의 모습을 함께 담아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강조했다.

LG는 지난주부터 광화문, 시청, 명동, 강남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APEC 기간 중 열리는 경제인 행사 ‘최고경영자 회의(APEC CEO SUMMIT 2025)’를 알리는 영상도 송출하고 있다.

LG 관계자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 상영 중인 AP E C 정상회의 홍보영상(위) 속 경주의 대표 문화유산 첨성대와 런던 피카딜리광장 전광판에서 상영 중인 APEC 정상회의 홍보영상.

의 성공적 개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기업 차원에서도 국내의 홍보를 통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인사

- ◆ **글로벌이코노믹** △IT바이오부장 최정호 △종합편집부장 이재욱 △편집부 전문위원 이운자
- ◆ **핀포인트뉴스** △금융부 부국장 정인홍

부음

- ▲ 임구연씨 별세, 임순환씨 상배, 임지선 임가현 임가희씨 모친상, 이한형(국민일보 사진부 기자)씨 빙모상=4일 대구 한때밀리병원, 발인 6일 오전 9시30분. 053-760-8800

오늘의 날씨

9월 5일 (금)
음력 : 7월 14일

수도권 날씨
24 ~ 33℃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05 | 해질 / 18:56

연천 20/32
동두천 21/32
가평 20/31
파주 21/32
서울 24/33
양평 21/31
인천 24/32
수원 23/32
용인 23/32
평택 22/33

백령도 23/2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타벅스,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 구성 강화

‘Hello, Student!’ 론칭 1주년
모든 제조음료 50% 할인 등 제공

스타벅스 코리아는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 론칭 1주년을 맞아 구성 콘텐츠를 한층 강화하고, 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혜택 제공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9월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 카카오톡 학생증으로 재학 중인 상태를 인증하면 제조 음료 할인, 음료 사이즈업 쿠폰 제공 등 월 최대 2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Hello, Student!’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지난 1년간 수십만 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가입했다. 가입자 중 80%가 만 25세 이하였으며, 4명 중 3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혜택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았던 대학생(대학원생) 회원 대비 월평균 구매 횟수와 구매액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매월 제공되는 제조 음료 할인 및 사이즈업 쿠폰이 Z세대 고객들을 매장으로 이끈 것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대학교는 고려대학교였으며, 숙명여자대학교와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 가입자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당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자 스타벅스는 개강을 맞은 이달부터 대학생 전용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혜택 구성을 선보인다.

가입자에게 최초 1회 주어지던 특정 음료 50% 할인 쿠폰 혜택은 앞으로 모든 제조 음료 50% 할인 쿠폰으로 제공되며, 매주 제공되는 혜택은 평일 제조 음료 30% 할인 쿠폰 1종에서 주말 제조 음료 1+1 쿠폰이 추가된 2종으로 제공된다. 평일에 이어 주말까지 쿠폰 이용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주어지던 특정 음료 사이즈업 쿠폰은 푸드 20% 할인 쿠폰으로 변경 제공돼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 이용자의 푸드 선택권을 크게 넓혔다. 대학생 혜택 프로그램 이용자가 사용한 혜택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도 열릴 예정이다.

포스코, ‘中企 교육훈련’ 최우수 기업 선정

(7년 연속)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성과평가

포스코는 고용노동부와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5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성과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대기업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현장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협력사·하도사·용역사 등 563개사 임직원 2만3458명을 대상으로 용접·천장크레인·기계정비·전기설비 관리 등 기술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역량 향상 교육 등을 펼쳐왔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컨소시엄 교육사업이 도입된 지난 2005년부터는 약 500여개의 기업과 협약을 맺고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한 인원은 현재까지 약 71만명에 달한다.

포스코는 최우수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1500만원을 포스코1%나눔재단에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인센티브 누적 기부금은 1억 8500만원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한 결과, 협력사 및 지역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했고 철강 생태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사 및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청호나이스, 우수산업디자인 선정

청호나이스의 ‘빌트인 냉온정수기 블리스’가 ‘2025 우수디자인(GD)’에서 우수산업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됐다. 4월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빌트인 냉온정수기 블리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방식의 취수 기능을 적용했다.

/청호나이스



무신사스탠다드, 새로운 엠베서더 선정

모던 베이식 캐주얼웨어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MUSINSA STANDARD)’가 배우 이도현과 한소희를 새로운 브랜드 엠베서더로 선정하고 2025년 가을·겨울 시즌(25 FW) 캠페인 화보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무신사

제3회 글로벌디지털초월대상(제품·인재) 시상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회 글로벌디지털초월대상」 시상계획을 공고합니다.
ACx(AI·Data·Cloud·콘텐츠·교통·보안·DiditalTwin/Human·PMO/감리)
첨단기술을 상용화하여 시장점유율 최고의 초월제품과
초월인재를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2025년 7월 16일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조 풍 연

시상 개요

2025년 ACx 기술혁신을 통해 상용화한 시장점유율 최고이며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글로벌 디지털 초월 제품 및 인재 선정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SW·ICT총연합회, 전자신문사, 메트로경제

시상 내역

시상 부문	표창	주관·후원기관 표창
기업	12점	과기정통부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상, 전자신문사장상, 메트로경제사장상, 한국SW·ICT총연합회장상 등
개인	3점	

※ 상격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자격요건

시상 부문	신청 대상 및 자격
기업	ACx 첨단 혁신기술을 상용화 하여 국내·외 시장점유율, 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초월제품 (제품, 서비스, 플랫폼)
개인	첨단 혁신기술을 연구개발 및 상용화하여 산업발전 및 국익 증진에 공헌한 개인

※ 표창 대상자 추천 및 제출서류 등 세부 내용은 「제3회 글로벌디지털초월대상 안내서」 참조
→ 협회 홈페이지(www.kswict.or.kr) 소식·알림 공지에서 내려받기

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25년 7월 16일 ~ 2025년 9월 12일
- 접수방법 : 홈페이지 www.kswict.or.kr
메일 kswict@kswict.or.kr
우편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402호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국
- 시 상 : 2025년 11월 26일

심사 절차



문의 사항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국(Tel: 02-858-8510)

이춘석 내부자로 처벌 못한다



이 정 희 역
西村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탈당과 제명이라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공교롭게도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정책을 다루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인공지능(AI) 정책 수혜주를 매입했다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이 의원에게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가장 심각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 거래 혐의에 대해 이 의원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맹점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174조에는 일반적으로 내부자 거래는 회사의 내부자가 자신의 지위를 통해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74조에 기재된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자본시장 미공개중

요정보 이용 행위로 규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제174조는 원칙적으로 회사 정보의 이용만을 규제하고 있다. 시장 정보는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와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의 이용만을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 회사 외부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하거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중에 취득한 입법정보 등을 증권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는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로 규제할 수 없다는 법적 취약점이 이 의원 사태로 노출된 것이다.

자본시장법을 잘 알고 있는 전·현직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정보수령자인 국회의원이 처벌되면 중요 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될 수밖에 없다 ▲이춘석 의원은 소버린AI를 추진할 업체를 선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생산하는 자이지 내부자가 아니다 ▲선정 정보는 대상 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부 정보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의원을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실 미국도 의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

다. 2012년까지만 해도 미국 연방의원은 의회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도 불법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2012년 4월4일 오바마 정부 때 ‘의회 정보를 통한 거래 금지법(STOCK)’이 나왔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국회의원 등에 의한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데 있다. 의원과 가족의 주식·가상화폐 거래를 4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별 효과가 없다는 게 곧 드러났다.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안티를 걸면서 법이 허술하게 통과된 것이 큰 이유다. 이 때문에 아예 연방의원의 주식 거래와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미국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법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아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법의 불공정한 부분을 고쳐 국회의원의 내부자거래를 원천적으로 막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차제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시 현재같이 재산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 보유 현황을 사후 공개하는 방식을 더 강화해서 주식을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했는지를 공개하는 방안도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됐다.

/linh@metrosoul.co.kr

디지털 전환과 금융장벽



기 지 수 첩
안 승 진
(금융부)

‘디지털 전환’은 최근 몇 년간 국내 은행들의 주요 목표로 부상했다. 각종 규제가 해체되며 비대면 금융의 영역이 넓어졌고, 불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절감된 비용은 은행의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며, 고객에게도 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는 환영할 만한 변화다. 간단한 이체·대출 업무를 위해 은행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고, 계좌 개설과 대출조차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가지고 있다면 손쉽게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누구에게

나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발길이 줄어든 은행 점포는 문을 닫고 있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담을 제공했던 전화 상담원들은 챗봇과 AI상담원으로 대체됐다. 고통자를 비롯한 금융취약계층에게는 무척이나 불편한 변화다.

오늘날 휴대전화를 통해 은행권 고객센터에 통화를 연결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장면은 ‘보이는 ARS’다. 모바일뱅킹과 유사하게 설계된 화면인 만큼, 고통자에게는 이용이 어렵다. “상담원에 연결하려면 0번을 눌러달라”라는 안내 문구를 듣기까지 1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

0번을 누르더라도 ‘진짜 상담원’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그 대신 AI(인공지능)상담사가 연결된다. 인공지능 상담사는 수차례에 걸쳐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오지만, 미완(未完)의 AI상담사는 반복해서 안내 문구만을 내놓기 일쑤다. 혹여 문제가 해결됐다

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연결을 일방적으로 종료해버린다. ‘진짜 상담원’과 연결하려면 AI 상담사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상담사 연결을 원한다고 여러 차례 요구해야만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국내 주요 은행에 고통자가 AI 상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내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은행들은 개선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더 말을 잘 알아듣는 AI상담원을 도입했다”라는 이야기만 매일같이 내놓고 있다.

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객센터 연결을 어렵게 만든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은행은 ‘신뢰’를 거래하는 곳이다. 고객에게 충분한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선 비용 절감을 고려하기에 앞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asj1231@

오늘의 운세9월 5일 (금 7월 14일)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아름다운 여인은 대개 명이 짧거나 불운하다는데, 48년생 멀리서 소식 온다. 60년생 정도를 걷는 것이, 72년생 사람의 부귀는 각자의 팔자에 달렸지만 운명론에 빠질 것까지는, 84년생 버드나무 잎이 하얗다 지듯 세월이 아삭.

소

37년생 싱그러운 식물 향기는 마음에 진정과 안위를 선물한다. 49년생 병이 오나 약도 주어진다. 61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73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이나 움직여봐라. 85년생 세상에 비밀이 없다.

호랑이

38년생 구름 위를 걷는 듯 행복한 하루. 50년생 아재 잘못을 오늘 또 되풀이. 62년생 밝은 전정어니 이직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74년생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순망치한 뿔치齒寒. 86년생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내 분수를 지키자.

토끼

39년생 사람의 집에는 손님이 많이 와야 부유해진다 했는데. 51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니 노력. 63년생 광기와 천재성 사이의 거리는 성공으로 측정. 75년생 기술로 자신의 자력을 보여준다. 87년생 당장 고쳐야 할 것을 방치.

용

40년생 일회일비하지 말고 차분히. 52년생 나의 사랑스런 동반자를 개새끼로 만들지 말도록. 64년생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 가야. 76년생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도 움직여준다. 88년생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던가.

뱀

41년생 열을 가는 꽃이 없으니 자만하지 마라. 53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다 보면 성과가 있다. 65년생 직장에서 외국어로 흥일점紅一點이다. 77년생 산속에 살아도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된다. 89년생 새벽닭이 울기를 기다려봐라.

말

42년생 태양은 항상 떠오른다. 54년생 기량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66년생 글자는 누가보아도 알기 쉽게 정자로 또박또박 쓰는 것이 좋겠다. 78년생 말을 할 때는 실행할 것을 계획하고 해야지만. 90년생 저 하늘이 무너지겠는가.

양

43년생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 55년생 시작하지 않으니 변하는 것도 없다. 67년생 선행을 행하니 열매로 돌아온다. 79년생 웃이 날개이니 의복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자. 91년생 인생의 의의는 노력하면서 가치를 발휘하는 데 있거 마련.

원숭이

44년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큰 행복. 56년생 열차 여행을 떠나보는 것이 좋겠다. 68년생 집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자리에 정리. 정돈하여 가정이 평온하기를. 80년생 덮어놓고 하다 보면 실패의 손잔을 마시게 되니. 92년생 비평을 즐기자.

닭

45년생 부화와 귀환은 조상님의 은덕으로 내가 부여받는 것. 57년생 어지럽게 늘어놓은 옷가지를 정리해보면 하루가 즐겁다. 69년생 부부라도 일기장을 엮보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81년생 질투도 습관. 93년생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개

46년생 영화를 본다. 58년생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으니 제사 지남을 피하지 말 것. 70년생 자신의 잘못은 보이지 않는 내 마음. 82년생 친구에게 밥을 사면서 생색내는 마음을 접는 것이. 94년생 마음이 가는 대로 걷자.

돼지

47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다. 59년생 물론 시대는 달라졌지만. 71년생 삼강오복에서 부모는 자식의 본보기라 했다. 83년생 직장에서 걸음걸이에 신발 소리 주의. 95년생 일생을 사느라려던 윤이 좋을 때도 있고 윤이 몰라갈 때도 있으니 공부.

김상회의四季

악연

양末,酉=사람을 제외한 뱀의 대표적 천적은酉닭 매다. 뱀이 양末와酉를 함께 보면 대패大敗 巳申刑=巳뱀은 원숭이申에서 병들고 대개 원숭이가 뱀을 잡아먹으니 뱀巳가 불리하다. 그러나 刑은 刑이므로 현상에서는 둘 다 상처는 입는다. 巳申病은 뱀 지렁이가 병이 든다는 얘기는 로드킬의 희생자들 명단에 빠지지 않는다. 이것이 인사형寅巳刑 사신행巳申刑 사술귀문巳戌鬼門의 몰상이다. 이런 운에는 가급적 비행기 자동차 선박등을 탈 때 주의를 요한다. 죽어도 고"다 해서 자동차경주를 하다가 옆에 탄 차가 잠바의 줄에 걸려 죽는 제임스딘이 나온 영화를 기억할 것이다. 이처럼 갑자기 죽는 데는 관상에도 적용된다.

존 F. 케네디 관상을 얘기했다. 관록궁이 잘 발달한 관상으로 재물은 물론이고 명예까지 얻는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정치적 성공을 거두며 부까지 얻는다. 입은 입술이 도톰하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데 이는 긍정적이며 낙천적인 성격을 상징한다.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반듯한 입술 모양은 그가 통솔력이 강하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진취적이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음을 암시한다. 케네디 관상의 전체적인 특징은 얼굴 전체의 조화가 남다르다는 점이다. 이목구비와 각 부위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활력이 넘치는 인상을 준다. 지성미를 풍기면서 누구에게나 친근하면서 신뢰감을 주는 정치적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삼정과 오관은 지도자의 상이며 운세의 전환과 위기 극복의 힘이 내포되어 있다. 탁월한 추진력으로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갔고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대담한 결단을 내렸다. 정치적 유연성과 강력한 기세가 조화를 이루는 관상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으나 絶地로 치닫게 되면 좋은 관상에도 불리한 결과가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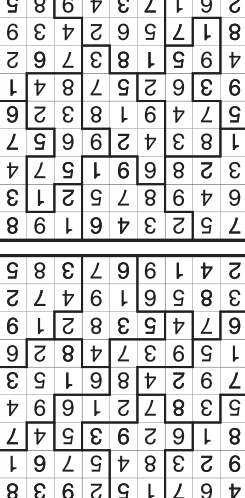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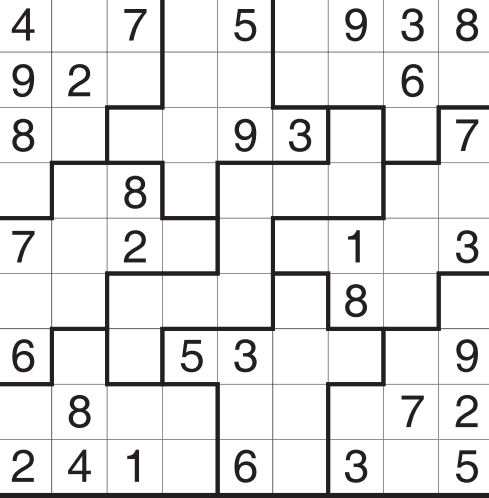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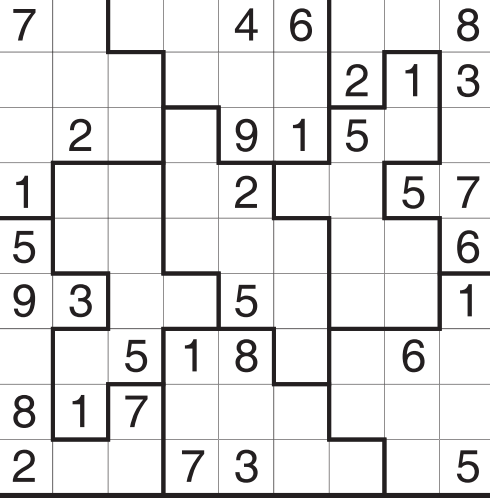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車와 食의 만남’… 르노코리아, 라이프스타일 공간 탄생

강남전시장에 ‘베리키친 강남’ 입점
연내 새로운 컨셉트 전시장 32곳 예정
전국 170개 전시장도 리뉴얼 진행중

르노코리아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강남전시장을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4일 밝혔다.

르노코리아가 지난 3일 오픈한 강남전시장은 연계 공간에 식당을 마련해 고객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차량과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르노 전시장 중 직영이 아닌 딜러사 운영점에서 식음료 공간을 도입한 사례는 강남전시장이 세계 최초다.

전시장에는 퓨전 음식점 ‘베리키친 강남’이 입점해 낮에는 샌드위치, 샐러드 등을 저녁에는 와인과 함께 퓨전 요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외관에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새로운 파사드 디자인을 적용했다. 또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인증 기술로 언제든 방문 가능한 24시간 전시장 ▲AI 알고리즘을 통한 차량 상담 및 맞춤 견적 ▲고객 위치 기반 찾아가는 시승 예약 서비스 등 첨단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한 점도 특징이다.



르노코리아 강남전시장 내부 모습.

르노코리아는 강남전시장 외에도 전국 170여개 모든 르노코리아 전시장을 대상으로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8년까지 모든 전시장 내부에 르노의 새로운 전시장 컨셉트인 ‘뉴알(NewR)’을 적용하는 한편, 주요 도심과 복합 쇼핑몰 등 고

객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는 스몰 앤 팬시 테마의 전시장을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컨셉트를 적용한 르노코리아 전시장은 올해 말까지 전국에 32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새로운 전시장들은 고객 접점 확대 및 서비스 만족 향상을 위해 상

담, 시승, 계약, 출고 등의 차량 구매 관련 서비스는 물론, 의류, 패션 액세서리, 자동차 모형 등 프랑스 디자인 감성의 ‘디 오리지널’ 굿즈와 다양한 브랜드 활동을 고객이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문화 단신

메가박스, 컨저링 등 개봉작 4편 돌비 시네마 상영

메가박스가 공포에서부터 뮤지컬과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로 가을 극장가를 이끌 9월 개봉작 네 편 ‘컨저링: 마지막 의식’,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라이브’, ‘어쩔수가없다’,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을 돌비 시네마로 상영한다.

3일 개봉한 ‘컨저링’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 ‘컨저링: 마지막 의식’은 공포 장르를 대표한다. 1986년 펜실베이니아, 자신의 집에 사악한 존재가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스컬 일가를 조사하던 워렌 부부가 지금껏 마주한 적 없는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악령에 맞서는 여정을 그렸다. 돌비 비전이 구현하는 어두운 배경 속 선명한 명암 대비가 돋보인다.

18일에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공연 실황 영화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라이브’가 개봉한다. 19세기 유럽, 죽지 않는 군인을 만들고자 한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



9월 메가박스에서 ‘돌비 시네마’로 상영되는 작품들. /메가박스

과 그 실험으로 태어난 괴물의 비극적 운명을 그렸다.

24일엔 이병헌, 손예진 주연의 박찬욱 감독 신작 ‘어쩔수가없다’가 개봉한다. ‘다 이루었다’고 느낄 만큼 삶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만수’(이병헌)가 덜컥 해고된 후, 아내와 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어렵게 장만한 집을 지켜내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롯데시네마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 기획전 공개

롯데시네마는 ‘빛의 마법사’로 불리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을 기획전으로 상영한다. 먼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재난 애니메이션 3부작으로도 널리 알려진 ‘스즈메의 문단속’,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가 라인업에 올랐다. 세 작품 모두 아름다운 작화, 색채감과 확연히 대비되는 각기 다른 재난, 재해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의 인연, 아픔과 성장, 그리움을 그려낸 공통점을 갖고있다.

‘초속5센티미터’ 본편과 함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직접 해당 촬영지를 다니며 촬영한 특별 제작기 영상이 추가된 ‘초속5센티미터x

특별영상 ‘어느 봄의 기억’” 또한 상영한다.

마지막으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초기작으로 알려진 ‘언어의 정원’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기획전 작품 중 오직 광음시네마에 서만 만날 수 있는 ‘언어의 정원’은 극중빛소리와 천둥 소리 등 감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작품 속 주요 음향 소재들이 광음시네마의 정교하면서도 입체적인 음향 증폭 사운드 기술, 감독이 구현한 수채화 같은 작화감과 함께 어우러져 43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에게 높은 만족감과 감동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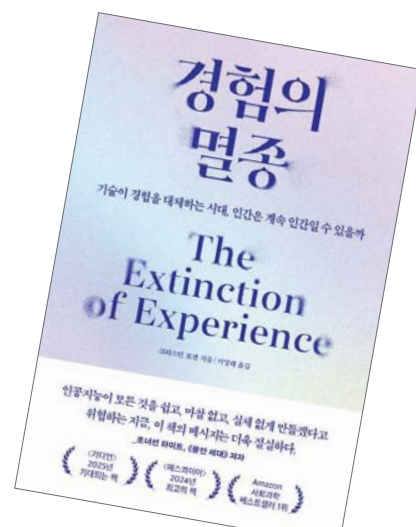
간접체험이 직접경험 자리 대체 기술·미디어 발전에 초라해진 삶

지난 2017년 콜드플레이 콘서트에 갔다가 크게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와서 올해 내 한공연엔 가지 않았다. 밴드 보컬인 크리스 마틴이 멋있어서 열창하는 그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팔이 왜 이렇게 아픈가 생각해봤다. 공연이 진행되는 2시간 내내 카메라 감독이라도 된 것만양 휴대폰으로 콜드플레이 멤버들을 찍어 대느라 팔목이 나갔던 것이었다. 콘서트장에 갔지만, 맨눈으로 그들을 보진 못했다는 생각에 후회가 밀려왔다. 대체 나는 그날 뭘 보고 온 것인가.

언젠가 어디선가 한 가수가 공연 중 스마트폰으로 자신을 찍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면 말고 자신을 보라며 휴대폰을 빼앗는 시늉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와 ‘시성비(시간 대비 성능)’가 지상 최고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현대인들은 경험을 외주화한다.

‘경험의 멸종’은 소셜미디어 시대의 ‘경험 왜곡’을 비판하며 기술과 미디어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어 놨는지를 설명한다. 우리는 좋아하는 유튜브가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직접 플레이를 하는 듯 몰입하고, 다이어트 중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한다. 또 영화 요약본을 2.5배속으로 시청하고는 교양을 쌓았다고 착각한다.

이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직접 경험이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소비하는데 쓰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경험의 의미를 음미하지 못한다. 타인이 SNS에 공유



경험의 멸종

크리스틴 로젠 지음/이영래 옮김/여크로스

한 영상을 통한 ‘간접 체험’이 ‘직접 경험’의 자리를 대체한다.

사람들은 왜 ‘공상의 경험’에 매료되는가. 게임을 속달하는 데 걸리는 지루한 시간, 맛집에 가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는 불편함과 같은 불편함을 손쉽게 해소해주기 때문이다. 클릭 한 번으로 여가부터 놀이, 식사까지 간접 체험할 길이 열리면서 경험은 ‘속도와 효율’로 소비되는 상품이 된다. 저자는 “무의식적으로 경험을 아웃소싱하는 세계가 진짜 당신이 살고 싶은 곳이나”고 물으며,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살아 있는 경험’을 하라고 조언한다.

364쪽. 1만9800원.

/김현정 기자 hjk1@



▲트럼프 “관세 소송 패소 시 韓·日 무역 합의 무효” 압박 /사진 뉴시스

▲구글, 개인정보 침해 소송 패소…6000억원 배상 판결

▲일본 정부, 中 주재 기업에 반간첩법 대응책 마련 요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한반도 모델 적용 가능”…美 안보 보장 참여 촉구

▲중국, 미국산 일부 광섬유에 최대 78.2% 반덤핑 관세 부과

▲트럼프 지명 연준 이사 후보 “통화정책 독립성 지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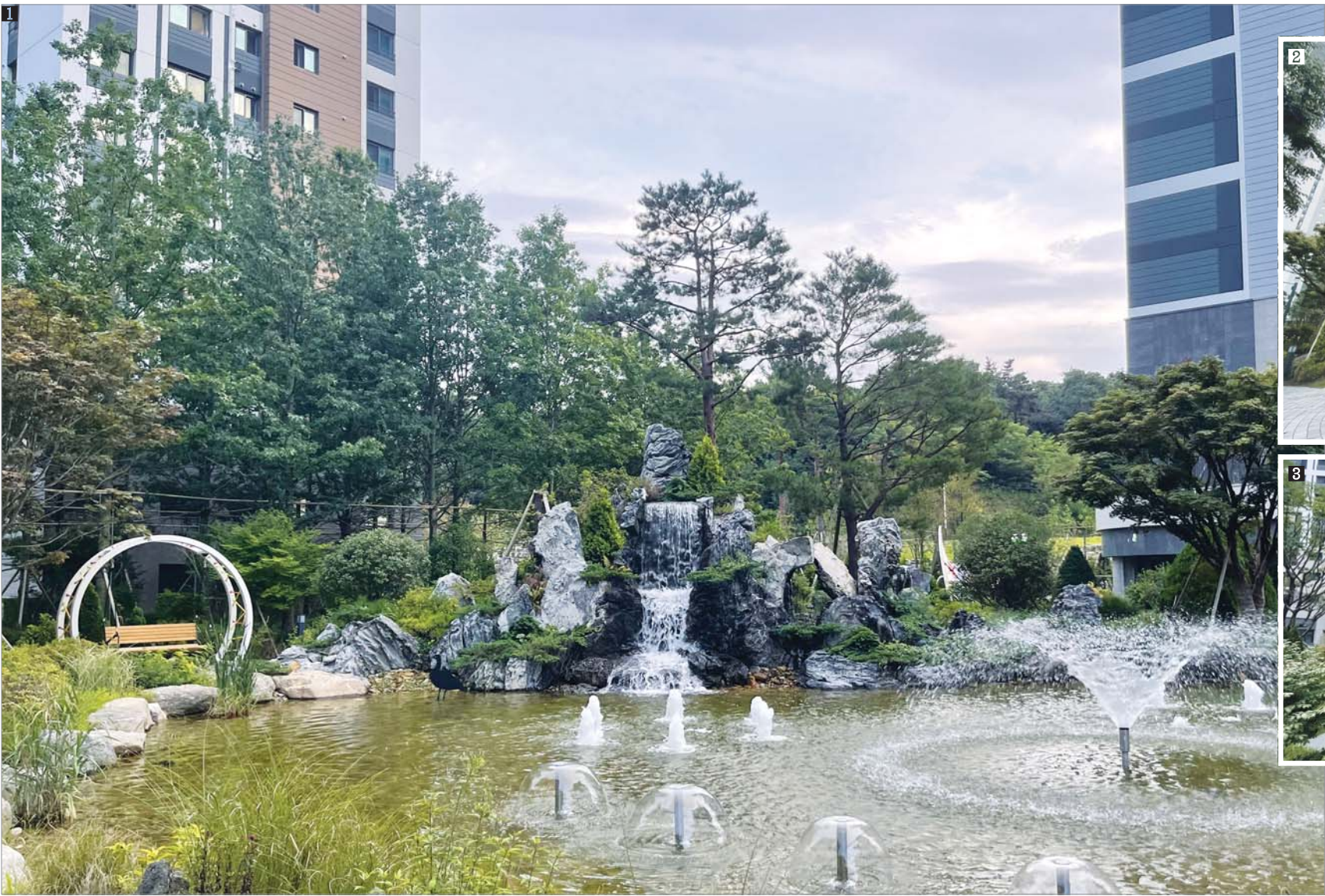


윤동한 콜마 창업주
경영권 분쟁
법정 첫 출석
L1

metro®

Life

리만코리아
화장품 원료
차별화
L2



- 1 물과 녹지가 어우러진 생태 연못.
- 2 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장수목' 느티나무.
- 3 인공폭포를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석가산.

푸른 나무 따라, 은빛 조각상 따라... 도심 속 정원 산책을

아파트의 미학(美學)

비봉 우미린 더 퍼스트

최근 찾은 경기 화성시 비봉면 '비봉 우미린 더 퍼스트'.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했다. 수인분당선 어천역 1번 출구에서 버스를 타고 15분 가량 걸렸다.

두툽한 석재 마감을 입은 출입구 프레임은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남기며 도시 속 성문처럼 단지의 위용을 드러낸다. 게이트 상단에 새겨진 '우미린 더 퍼스트' 글자는 묵직한 구조물 위에서 은은히 빛나며 브랜드 정체성을 뚜렷이 각인시킨다.

입구 왼쪽에는 '린(Lynn)' 로고가 단정히 자리해 있다. 검은색 유리 파사드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로고는 절제된 배경 속에서 더 뚜렷하게 빛나며, 브랜드가 지향하는 세련된 미감을 강조한다.

단지 주변에는 서해안고속도로 비봉나들목(IC)이 위치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비봉~매송 고속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바로 앞 화성로를 통해 화성시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향후 고속철도(KTX) 어천역(2026년 예정)이 개통되면 전국 곳곳으로 이동이 수월해진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고 바로 앞에는 청연중 학교가 위치해 있다. 인근에 신세계그룹이 약 4조 5000억원을 투자하는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2026년 착공 예정으로 2030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 진행에 속도가 점차 붙어 수혜가 기대된다.

우미건설이 시공한 비봉 우미린 더 퍼스트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총 798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국평' 전용 84㎡ 단일면적으로만 구성됐다.

단지의 중심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붉은 곡선 화단에 감싸인 느티나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위로 쪽 뻗은 가지와 단단한 수형은 마치 단지를 지탱하는 기둥처럼 서 있다. '장수목'이라 불리는 느티나무가 주는 강인한 기상은 고층 건물이 하늘을 찌르는 풍경 속에서도 또렷한 균형감을 이룬다.

정원에는 다양한 관목들이 층층이 배치돼 있어 사

차분한 외관과 어우러지는 세련된 조경
단지 중심엔 상징목인 '느티나무' 배치
다양한 관목 조성... 사계절 녹음 풍성해

물과 녹지 어우러진 생태연못·인공폭포
반려견 성향에 맞게 구획된 전용 놀이터
단지 풍경 담긴 은빛 조각상 등 볼거리도



산사나무 숲과 조화를 이루는 은빛의 원형 조형물.



김도훈 작가의 '균형'.

계절 내내 풍성한 녹음을 제공한다. 푸른 잎사귀 사이로 드리워진 그늘 아래에는 유려한 곡선형의 화이트 체어가 놓여 있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게 만든다.

붉은 화단이 더해져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단지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도심의 거대한 외벽 사이에서도 이곳은 한층 부드러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강인한 느티나무와 정갈히 다듬어진 녹지, 그리고 여유를 위한 쉼터가 공존하며 단지 안의 '작은 숲'으로 완성된다.

생태연못은 물과 녹지가 어우러진 또 하나의 풍경이다. 분수와 폭포가 만들어내는 물소리는 도시의 소음을 가려내고 물안개처럼 퍼져 나가는 시원한 공기를 전한다.

투명하게 가라앉은 수면 위로는 노랑꽃창포, 물양귀비, 왕부들 같은 수생식물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어 연못이 단순한 조경 요소를 넘어 작은 생태계를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석을 거슬러 흐르는 인공폭포는 원목 다리와 어우러져 한국 정원의 정취를 연상케 하고 원형 벤치와 티하우스는 이 풍경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쉼터가 된다. 물가를 따라 난 산책로는 발걸음을 천천히 늦추게 하고 연못가에 앉아 바람을 맞으면 일상의 긴장도 조금씩 풀려나간다.

단지 안쪽에는 반려견을 위한 작은 놀이터가 마련돼 있다. '프리펫존'과 '중형펫존'으로 구획된 공간은 반려견의 크기와 성향에 맞게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초록빛 인조잔디 위에는 장애물 점프대, 원형 터널, 슬라이드 기둥 등이 설치돼 있어 반려견들이 신나게 달리고 뛰어넘으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 주변을 둘러싼 짙은 녹지와 펜스는 외부와 구분되는 아늑함을 주고 견주들도 안심하고 반려견을 풀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카페린(Lynn)'과 하프코트 실내체육관,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장연습장, 실내놀이터,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등이 마련된다. 특

히 카페린은 단지 한 칸, 붉은 벽돌 외벽과 흑백 스트라이프 차양이 어우러진 작은 공간이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집 앞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고 이웃과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눌 수 있다.

단지 뒤편에선 하얗게 벗겨진 줄기가 줄지어 늘어진 자작나무 숲 길을 만났다. 희끗한 껍질에 햇살이 닿으면 나무마다 은은한 빛이 번지고 길은 마치 북유럽의 숲속을 옮겨온 듯한 청량함을 전한다.

단지의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눈길을 끄는 원형 조형물이 나타난다. 은빛 거울 조각을 이어 붙인 듯한 이 구조물은 하늘과 나무, 건물의 빛깔을 고스란히 비추며 낮에는 풍경을 담고 저녁이면 조명과 어우러져 또 다른 표정을 드러낸다. 단순한 원의 형태는 '순환'과 '영속'을 상징하며 주거 공간에 담긴 삶의 리듬을 은유하는 듯하다.

조형물 주변에는 낮은 관목이 둘러져 있어 작은 정원을 이루고 그 옆에는 다채로운 색채의 가구들이 배치돼 있다. 꽃잎을 닮은 파라솔과 삼각형 좌석은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잠시 쉬어가는 쉼터 역할을 하면서도 단지의 풍경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김경아 작가의 'WAVE - 공간의 선율'은 유선의 부드러운 형태와 구획되어진 공간의 영역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됐다. 작품을 마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선사한다.

김도훈 작가의 작품 '균형'은 수많은 선과 면으로 공간을 균형 잡힌 형태로 조형화 한 작품이다. 직선과 직선이 결합된 기하학적 구조의 독특한 표면기법으로 선과 면이 겹겹이 쌓여 이루는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변화되는 표면의 입체적인 면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빛을 통해 다채롭게 빛나는 시각적 아름다움과 무한한 발전을 담아 공간적 조형미에 포인트가 된다.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호수를 헤엄치는 거대한 오리', '래서 판다 통나무 집' 등 동심 가득한 놀이요소는 아이들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유도한다.